

수도의 본질과 방법에 관한 고찰

楊茂木*

目次

I. 연구의 시각	IV. 「도의 완성」을 위한 여러
II. 도란 무엇인가?	종교의 수행 양상
1. 공자의 도	1. 노자의 수도 양상
2. 노자의 도	2. 불교의 수도 양상
3. 장자의 도	3. 기독교의 수도 양상
4. 불교에서의 도	V. 대순진리에서의
5. 기독교에서의 도	수도와 도통진경
6. 대순진리회에서의 도	1. 수도의 목표
III. 인간의 구원과 수도	2. 수도의 필요성
1. 종교와 인간 구원	3. 수도의 실천 과정
2. 수도와 인간 구원	VI. 결 론

I. 연구의 시각

수도의 본질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음으로써 지극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도의 완성을 통해 현세의 고통을 넘어선 영원한 구원에 이르하고자 하는 것이다. 온갖 탐욕과 무질서와 원한으로 얽혀 있는 현실을 벗어나 지극한 평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성도(成道)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성도에 이르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수도(修道)이다. 이같은 수도의 과정이나 본질에 관해서는 여러 종교 혹은 사상가들이 다루어 왔고, 대순진리회에서는 신조로서 4강령을 두고 그 중의 하나로 수도를 내세우고 있

*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기도 하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4대 종지를 제시하여, 대순사상의 궁극적 목표인 도통진경에 이르는 과정을 이미 「대순사상논총」 제1집부터 제7집에 이르는 연속 특집을 통해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그러나 도통진경에 들어서는 과정은 결코 논리적인 이론의 세계가 아니다. 4대 종지에 입각해 몸과 마음과 의지의 수련을 계속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수도의 목표인 도(道)의 완성을 위한 전제로서 도의 본질을 밝히고 이의 실천적 수행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도에 대해서는 공자와 노자, 그리고 장자가 말한 동양의 도가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동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에서의 도에 대해서 논구한 뒤 비록 동양사상과 다르다고는 하나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상 체계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지는 기독교에서의 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같은 연구의 시도는 궁극적으로 동서양 사상을 아우르는 대순진리회에서의 도는 어떤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으로 논구해 보았다.

동양에서는 도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혹은 천지와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는 원리의 개념으로 파악했다. 공자는 주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인륜으로서 도를 말했다. 공자 철학의 중심 개념을 이루고 있는 도는 개인은 물론 사회나 국가, 그리고 천하가 모두 이에 따라 행동하고 또 인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공자의 도는 인을 통해 완성되며 인이란 공자의 가르침에 일관되어 있는 정치적, 윤리적 이상(理想)을 가리킨다. 공자의 도 사상은 예와 의와 인 등의 세 관념이 그 기본을 이루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및 국가가 이상사회를 이루는 것을 지향했다.

노자는 도는, 텅 빈 그릇처럼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거기에는 우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했다. 노자 사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은 만물을 있게 한 근원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상주불변(常住不變)의 존재이다. 노자에 의하면 도는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은 영원히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만사를 포함한 대도(大道)는 무위이며, 무위에 돌아가면 세상에는 아무런 혼란도 발

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장자는 우주의 본체를 도로 보고 도가 하늘을 낳고 땅을 낳았다고 말하는 등 만물이 비롯되는 바로서의 도를 말했다. 즉, 천지 만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법칙이 도이며 이를 따를 때 진인을 이룬다는 것이 장자의 생각이었다. 결국 장자는 도라는 개념을 내세워 모든 현실적인 인간 생활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유 해방을 실현하려는 차원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동양 종교인 불교는 해탈을 말하면서 무지가 극복되고 지혜와 깨달음을 이루면 그로 인해 고통이 소멸된다고 보았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는 영생, 천국, 구원 등의 중심 개념이 상징하듯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세계, 즉 도(道)의 세계로 대표된다. 기독교의 도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완성을 목표로 하면서, 인간 구원이 성취된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며, 인간 자체가 구원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한편 동서양 사상을 아우르는 인류구원의 진리로 알려진 대순사상의 도는 이상사회와 후천선경의 새 세상을 제시하며, 종지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을, 신조로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사강령(四綱領)과 성(誠) 경(敬) 신(信)의 삼요체(三要諦)를, 목적으로 무자기(無自欺)-정신 개혁·지상 신선 실현-인간 개조·지상 천국 건설-세계 개혁 등을 내세운다. 대순사상은 신과 함께 인간 개체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한편 신인의 교감을 통한 진정한 조화 속에서 천도도 지도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다. 대순의 도 사상은 우주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법칙이며,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사상이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진리를 추구해 가는 사상이다.

이처럼 동양 사상을 비롯한 동서양의 대표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도의 본질을 알고 나면 종교와 인간의 구원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교와 인간 구원, 수도와 인간 구원에 대해서도 본고는 논해보았다. 종교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에 대한 의문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다.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구도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종교이며,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뒷받침하는 행동 양식이

바로 수도(修道)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수도는 마지막 도통의 단계를 넘어 궁극적인 실재와 하나가 되는 자유와 해탈, 그리고 선경(仙境)에 이르는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게 된다.

도의 본질을 알고 종교와 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실천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도의 본질을 깨치고 나면 이의 완성을 위한 종교의 수행 양상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각 종교마다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노자는 본연의 세계를 말했는데 이는 있는 그대로 자족적이며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완성에 이르는 세계이다. 이에 따라 노자는 만물의 근원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알아서 망령되지 행동하지 말 것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신을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하려면 자신의 욕심을 눌러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분수를 지켜 자기의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자는 수양에 의해 도에 통하면 마음이 하늘처럼 광대하게 되며, 바로 무위의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며 무위의 도만 체득하면 영원불멸성을 얻게 되어 일생동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불교에서의 수도는 감정이나 의지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려고 되풀이해서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그 도의 완성은 인간 고통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소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타는 이를 열반이라고 표현했다. 불교 수행의 목표는 사람으로 하여금 탐욕(貪慾)을 완전히 없애고, 성냄을 아주 없애고, 어리석음(痴暗)을 뿌리까지 없애는 것 등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지혜와 마음의 해탈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 불타는 또 자신의 정신적·지적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까지 기꺼이 일생을 바쳐 많은 사람의 선과 행복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천당에 가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여기에 수도 즉 기도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라 하겠다. 이같은 수행의 절차에는 내적 훈련인 명상과 기도, 외적 훈련인 복종과 봉사의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훈련의 목적은 인

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예수는 영적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순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대순사상은 이상적인 인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의 인간구원은 도통진경의 경지에 도달하여 자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다. 즉 수도란 늘 마음과 몸을 고요히 하며 정심(正心)에 이르도록 하여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몸이 구현시키는 일이다. 이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며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正心),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一心)고 강조하고 있다. 한 마음이란 곧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인간 본래의 본성(本性)을 찾은 상태를 말하며, 인간 본성의 회복은 바로 도통과 관련을 갖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각 종교의 상이한 수도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대순진리에서의 수도와 도통진경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도의 본질과 목표 그리고 실천 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였으며 그 수행 과정과 수행의 완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수도와 함께 경전은 종교인의 본질적 자세를 가름하는 주요한 요소인 만큼 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이나, 경전과 수도는 그 맥이 서로 통하면서도 구체적 각론에 이르면 각도를 달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여러 요소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경전에 대한 고찰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경전과 수도는 그 맥이 서로 통하는 만큼, 수도에 대한 고찰은 자연스럽게 경전에 대한 고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II. 도란 무엇인가?1)

인간 행위의 모든 원천을 따르는 것이 도이다. 도(道)란 동양 철학에서 나온 말로서 인간이 따라야 할 법칙이며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다. 바둑을 두

1) 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宗教와 文學을 통한 道通眞境 思想의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참조

는 것을 기도라 하고, 차를 마시는 것을 다도라 하듯이 도란 동양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사상으로 그 연원 또한 깊다. 동양 철학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공자는 주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인륜으로서 사용하여 후세에 이르기까지 유학자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실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노자나 장자는 우주 만물의 근원, 근본원리, 즉 절대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하고, 이것이 그들 학설의 근간을 이루었다. 동곽자(東郭子)가 장자에게 「도」에 대해 물어본 대목을 보자.

“동곽자가 장자에게 이른바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장자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없는 곳이 없다. 동곽자가 또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지적할 수 없겠습니까? 장자는 이에 대해 땅강아지와 개미에게 있지. 어찌 그런 곳에 있습니까? 쓸모없는 들풀 같은 데 있지. 어찌 더욱 그런 데 있습니까? 벽돌 속에 있지. 어찌 자꾸만 더욱 심해지는지요? 장자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똥오줌에 있지. 동곽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2)

도라는 것은 이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나 함부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장자는 보았다. 도라고 이름짓는 것마저도 도가 아닌 절대적 세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항상 존재하는 하나의 변화 유행(流行)하는 작용으로서 우주를 이루고 만물을 낳고 하여 어디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변화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물을 이루는 데 어떠한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 3)는 것이다.

「도」에 대해 공자는,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한다.” 4) 맹자는, “도는 하나일 뿐이다.” 5) 노자는, “성인은 하나의 도만을 굳게 지켜서 천하의 모범이 된다.” 6) 장자는, “서로 해괴망측하게 상대되어 있으나 도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로 통한다” 7) 라고 말하였다. 또 불교에서는 사성제(四聖諦)를 통해 도

2) 「莊子」 <知北遊篇>, “東郭子問於莊子曰, 所謂道, 惡乎在? 莊子曰, 無所不在. 東郭子曰, 期而後可. 莊子曰, 在螻蟻. 曰, 何其下邪? 曰, 在稊稗. 曰, 何其愈下邪? 曰, 在瓦甃. 曰, 何其愈甚邪? 曰, 在屎溺. 東郭子不應.”

3) 「周易」 <繫辭傳>, “範圍天地之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

4) 「論語」 <里仁篇>, “吾道一以貫之.”

5) 「孟子」 <滕文公 上>, “夫道, 一而已矣.”

6) 「老子」 제22장, “聖人抱一爲天下式.”

7) 「莊子」 <제물론>, “恢掩橘怪, 道通爲一.”

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독교에서는 천국 사상과 구원 사상으로 도의 세계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도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간단 명료하게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란 무엇이며, 또 도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동쪽자의 물음에 대해 장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 듯 모를 듯 농담으로 대응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비록 도에 대한 개념적 혼란은 있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학자들이 도의 본질에 관해 정의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대순사상의 도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1. 공자의 도

공자 철학의 중심 개념은 바로 ‘도’ (道)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생각하는 도는 개인은 물론 사회나 국가, 그리고 천하가 모두 이에 따라 행동하고 또 인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공자는 일찌기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좋으니라”⁸⁾고 했다. 이 말은 인간 삶의 목적인 진리를 깨닫고 체득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뜻한다.

공자의 도는 예(禮)로부터 시작되어, 인(仁)과 의(義) 등 여러 관념에 이른다. 즉 인, 의, 예에 대한 세 관념이 공자 도사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자의 도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도는 예(禮)라는 것이다. 예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칙(儀則)으로, 좁은 의미로는 의식절차(儀文)를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절도와 질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는 명분을 바로잡는 것이며, 사회의 질서이며, 국가 조직의 제도를 의미한다. 예가 문란해지면 국가 사회의 평화가 파괴되어 인간의 성정(性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겠다. 『논어』 <팔일편>에서 공자는 임방(林放)의 ‘예의 근본’에 대한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옳지, 좋은 물음이다. 예는 그 사치함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편이 좋고,

8) 『論語』 <里仁篇>,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상례(喪禮)는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슬퍼해야 하느니라.” 9)

공자는 예란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실질적이며, 장례의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진심어린 애통함의 표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공자는 형식적인 절차는 모두 개변(改變)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가 말하기를, 제례(祭禮)에 삼으로 짠 제관(祭冠)을 쓰는 것은 고례(古禮)이다. 이제 굵은 실로 짠 관을 쓰니 검소하다. 나도 여러 사람들은 대로 따르겠다. 뜰 아래서 절하는 것은 고례이다. 지금은 뜰 위에서 절을 하니 교만하다. 비록 여러 사람과는 틀리더라도 나는 뜰 아래서 절 하리라.” 10)

공자는 옛부터 내려오는 예라고 해서 꼭 좇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한다. 즉 예에는 크고 작음이 없으며, 모두가 풍속일 뿐이며, 여러 사람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는 하나의 도리와 정당성을 기초로 하는 질서성의 관념이기 때문에, 예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는 오직 리(理)에 의해서만 고칠 수 있다고 했다. 리는 바로 공자가 말하는 의(義)를 의미하며, 예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공자는 또 말한다.

“천명(天命)을 모르고서는 군자 노릇을 할 길이 없고, 예를 모르고서는 남 앞에 나설 길이 없으며, 말을 모르고서는 사람을 알 수가 없느니라.” 11)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 장사도 예로써 하고, 제사도 예로써 하느니라.” 12)

“공손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으면 수고롭게 되고, 근신하기만 하고 예절

9) 『論語』 <八佾篇>, “林放問禮之本. 子曰, 大哉問. 禮, 與其奢也寧儉. 喪, 與其易也寧戚.”

10) 같은 책, <子罕篇>, “子曰 麻冕 禮也 今也純 儉 吾從衆. 拜下禮也 今拜乎上 泰也. 雖違衆 吾從下.”

11) 같은 책, <堯曰篇>, “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12) 같은 책, <爲政篇>,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용감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으면 난폭하게 되고, 정직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으면 박절하게 된다.” 13)

공자는 이처럼 그 나라 사회의 제도와 풍속을 존중하여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했으며, 예를 숭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공자는 주 왕조가 쇠락하게 된 이유도 “예의 무너짐과 악의 파괴”(禮崩樂壞)에서 찾았던 것이다.

둘째, 도는 의(義)라는 것이다. 의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인도(人道)를 위하여 진력하는 일을 의미하며, 마땅함, 옳음, 정당함 또는 도리를 가리킨다. 공자의 “...옳은 일을 보고도 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니라” 14)고 한 말이나, 정나라 대부였던 자산(子産)을 평하여 “그는 군자의 도를 네 가지 지니고 있었다. 몸가짐이 겸손하였고, 웃사람 섬기기를 공손히 하였고, 백성들에게는 은혜롭게 하였고, 백성 부리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15)고 한 말이나, “...옳은 일을 듣고도 실천할 수 없고, 선하지 못한 것을 고칠 수 없음은 나의 근심이니라” 16)고 한 말 등은 모두가 하나같이 의란 공정함을, 정당함을, 책임 등을 가리키고 있다 하겠다.

셋째, 도는 인(仁)이라는 것이다. 인이란 공자의 가르침에 일관되어 있는 정치적, 윤리적 이상(理想)을 가리킨다. 즉 극기복례(克己復禮)를 그 내용으로 하고, 윤리적 모든 덕(德)의 기초가 되는 심적 상태로서, 천도(天道)가 발현하여 인이 되고, 이를 실천하면 만사가 모두 조화(調和)롭게 발전된다는 사상을 의미한다.

공자는 말한다.

“대체로 인이란 것은 자신이 나서려고 하는 곳에 남을 내세우고, 내가 이룩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남에게 이룩하게 해주는 것이다. 가까운 자신을 비유로 삼는다면, 남의 처지를 미루어 보는 것이 인을 행하는 방법 이니라.” 17)

13) 같은 책, <泰伯篇>, “子曰 恭而無禮則勞 愼而無禮則憊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

14) 같은 책, <爲政篇>, “子曰, … 見義不爲 無勇也.”

15) 같은 책, <公冶長篇>, “子謂 子産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

16) 같은 책, <述而篇>, “...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

이 말은 “만일 백성들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라는 자공의 질문에 대해 공자가 한 말이다. 여기서 인이란 남을 자기처럼 여기고, 사사로운 감정의 얽힘을 깨끗이 제거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로 인에 뜻을 두면 악한 일이 없느니라.” 18)

사람이 인을 갖추고 있으면 사사로움이 저절로 없어지고, 사사로움을 없앨 수 있으면 결국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인이 멀리 있겠는가? 내가 인을 바라면 곧 인이 이르러 오느니라.” 19)

인은 남과 내가 함께 하며, 우리 인간 모두와 함께 하며, 우리가 인을 행하면 인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인을 행하지 않으면 인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결국 우리가 인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행동가짐에 있다는 것이 된다.

더욱이 공자는 예와 의, 예와 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먼저 공자가 해석한 예(禮)와 의(義)의 관계를 보자.

“군자는 의로써 바탕을 삼고, 예로써 이를 실행하며, 겸손으로써 이를 나타내고, 믿음으로써 이를 이룩한다. 이것이 군자이니라.” 20)

군자는 지식만을 축적하는 인물이 아니라 인간다운 훌륭한 행동을 하며, 사회를 평화롭게 하며, 훌륭한 일을 완성하는 인물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해

17) 같은 책, <雍也篇>,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18) 같은 책, <里仁篇>, “子曰 苟志於仁矣 無惡也.”

19) 같은 책, <述而篇>, “子曰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20) 같은 책, <衛靈公篇>, “子曰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서 군자는 모든 일을 ‘정의에 바탕을 두고 예로써 실행해야 한다’ 고 했다. 다시 말하면 예는 의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이다. 의는 예의 실질이며, 예는 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음, 공자가 해석한 예(禮)와 인(仁)의 관계를 보자.

“나(私慾)를 누르고 예를 행하는 것이 인이다. 단 하루라도 나를 누르고 예를 행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이루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어찌 남으로부터 비롯될 것인가? …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21)

이 말은 안연(顔淵)의 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공자의 말로, 인과 예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인이란 극기복례(克己復禮), 즉 사사로움을 제거하고 이치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수양에 의한 것이며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공자는 또 말한다.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도 험한 옷과 험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이런 사람과는 더불어 이야기할 대상이 못되느니라.” 22)

“부와 귀는 사람이면 바라는 것이다. 도로써 그것을 얻지 아니하면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가난과 천함은 인간이 싫어하는 것이다. 도로써 얻은 것이 아니면 버리지 않는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서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먹는 동안이라도 인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급한 때라도 반드시 인에 의지하고, 넘어져 자빠지는 때라도 인에 의지하여야 하느니라.” 23)

도와 인은 삶의 근본이다. 부와 귀도, 가난과 천함도 모두 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삶의 일체는 모두 도로써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도의 원동력은

21) 같은 책, <顔淵篇>,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22) 같은 책, <里仁篇>,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23) 같은 책, <里仁篇>,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 違人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바로 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자의 도 사상은 예와 의와 인 등의 세 관념이 그 기본을 이루고 있다. 예가 의를 내용으로 삼고, 의는 또 인을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자는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一貫之道) 라고 말했다. 공자의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도로써 미루어 알기 때문에, 인간의 삶 역시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때문에 인간사 모든 행·불행은 바로 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일 게다.

공자의 도 사상을 이렇게 본다면, 공자가 말하고자 한 도란 바로 개인 및 국가의 하나의 이상적인 생활방식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예는 도란 이웃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덕에 대한 자극을 이기심으로 호소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권장하면서도 상벌을 약속하지 않는 것 등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것은 공자의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도’ 를 따르지 않는가?”²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좋으니라” 등의 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따라서 공자의 도는 성실과 공경, 정의와 친절 등의 모든 덕을 포함한 생활방식으로써 예를 비롯해 의, 인을 가장 높이 존중하는 사상이라 하겠다.

2. 노자의 도

노자(老子)가 언제 태어났으며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史記』에 의하면 노자의 성은 이(李), 이름은 이(耳), 자(字)는 백양(伯陽), 시호는 담(聃)으로 초나라의 고헌(苦縣: 하남성의 녹읍현) 사람이라고 하며, 공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공자보다 나이가 약간 많았으며, 또 공자가 그에게 예(禮)에 관해 물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노자가 실제로 존재한 사람인지, 그의 생몰 연대가 언제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경(道德經)』은 노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노자」 또는 「노자도덕

24) 같은 책, <雍也篇>, “子曰 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

경」이라고도 한다. 도가철학의 시조로 불리는 노자는 약 5,000자, 81장으로 되어 있는 「도덕경」을 지었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집된 흔적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변형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경」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과 상반된 처지에도 불구하고, 「도덕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기본사상이 변함 없이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²⁵⁾

「도덕경」의 사상은 한 마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이며, 이것이 바로 노자 사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노자가 말한 도란 우주 본체와 우주 내의 모든 사물의 형성원리의 혼합체로서, ‘만물의 종’ (萬物之宗), 즉 ‘만물의 근본’ 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도는 텅 빈 그릇처럼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거기에는 우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라는 그릇은 비어 있지만 언제든지 퍼내더라도 다시 채울 필요가 없으며, 또 넘치는 일도 없으며, 그래서 그것은 깊고 깊어 만물의 종과 같다고 하면서, 또한 그것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태고의 제왕보다 먼저인 것 같다고 하였다.²⁶⁾ 그러므로 도는 형체도 없고 형용할 수 없으며 이름조차 지을 수 없는 영원불변의 것이다.

노자의 도는 이와 같이 유교에서 말하는 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유교에서 말하는 도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천 도덕을 말한다.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도는 천도(天道)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도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름조차 지을 수 없으며, 또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처음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자의 무위자연, 즉 만물을 있게 한 근원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상주불변(常住不變)의 존재인 노자의 도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도는 만물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노자는 도를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정의, 우주적 실재로 보았다. 그는 만물이 발생하기 이전인 태초의 우주를

25) 鄭仁在 譯/勞思光, 中國哲學史(古代篇)(서울: 탐구당, 1995), pp. 185~215

26) 「道德經」, <第4章>, “道沖 而用之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

혼돈 상태로 상정, 무질서 속에서 형상조차 알 수 없는 우주의 총체적 모습을 ‘도(道)’ 라고 이름하였다. 또 그는 도를, 빈 그릇이지만 언제든지 퍼내더라도 다시 채울 필요가 없으며 또한 넘치는 일이 없으며, 그것은 깊고 깊어 만물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즉 도는 혼돈의 실재이며 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또 “도가 그것(만물)을 낳고 덕이 그것(만물)을 기르니 만물의 모양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만물은 도를 존경하고 덕을 귀중히 여긴다.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저절로 그런 것이다”²⁷⁾ 라고 하였다. 즉 이 말은 도 활동의 무한성과 인간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깊이와 천지가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것과 도를 체득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용(德容)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도는 무위자연의 도로써 일체 만물을 생성화육하는 위대한 조화작용을 하며,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 만물은 음기(陰氣)를 포함하고 양기(陽氣)를 지녀서 혼연히 하나로 풀려 화합한다”²⁸⁾고 하였다. 이것은 도에서 만물에 이르는 생성과정과 생성된 만물과 도의 근본이 같음을 말하며, 『장자』의 “태초에 무(無)가 있었다. 거기에는 유(有)도 이름도 없었다. 그것에서 오직 하나의 시초가 있었다. 하나가 있었지만 아직 형(形)이 없었다. 그러나 만물은 이를 얻어 생겼다. 이것을 덕(德)이라 한다” (泰初有無. 無有無名, 一之所起. 有一而未形物得以生 謂之德.-天地篇)고 한 말이나, 『회남자』(淮南子)의 “도는 하나로 시작된다. 하나로써 생기지 않으므로 나뉘어 음양이 된다. 음양이 화합하여 만물을 낳는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天文訓) 라고 한 말 등과 뜻을 같이 한다. 따라서 도는 만물을 낳는 본체 즉 근본으로, 변함없이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총괄하는 것이다.

둘째, 도는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노자는 우주

27) 같은 책, <第51章>, “道生之 德畜之 物形之 勢成之 是以萬物 莫不尊道而貴德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而常自然.”

28) 같은 책, <第42章>,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와 만물, 즉 자연이 도를 따라 영원히 운동하고 변화하며, 만물은 모두 다 도에서 나와 또 도에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이 자연의 대도(大道)로서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라 하였다. 즉, 추운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돌아오고 봄이 가면 더운 여름이 돌아오고 여름이 가면 수확의 계절 가을이 돌아오고 가을이 가면 역시 추운 겨울이 온다. 이러한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주와 만물은 모두 한 상태로 고정되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 운동을 하고 스스로 변화한다. 이것을 도의 운동에 의한 변화라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는 스스로의 운동을 통해서 가고(逝), 가서 극에 이르고(遠), 극에 이르러 되돌아가며(反), 그것이 순환으로 영원히 되풀이 된다. 이러한 변화와 운동에는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의 규칙성을 노자는 ‘도’라 불렀고,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도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노자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의 작용이다. 천하 만물은 유(有)에서 생겨나며, 유는 무(無)에서 나온다”²⁹⁾고 한 말이나, “만물은 무성해도 그 뿌리로 돌아간다”³⁰⁾라고 한 말 등은 이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고, 유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천지 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그 유는 또한 무(형태가 없는 도)로부터 생긴다. 도는 만물을 생성화육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운동한다. 그것은 근원이 되는 도에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 도의 작용은 어떤 법칙성을 띤다. 물론 만물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하고 변화한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운동이나 변화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노자의 “유와 무는 서로를 생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룬다”³¹⁾고 한 말이나, “화는 복에 의지해 있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그 돌아가는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옳다는 것도 곧 기괴(奇怪)한 것이 되고, 선한 것도 또한 요괴(妖怪)한 것으로 변한다”³²⁾고 한 말은 “되돌아감이 도의 운동”(反者道之動)이란 것이며, 이러한 변화와 운동의 원리는 바로 자연법칙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라 할 수 있

29) 같은 책, <第40章>, “反者 道之動 弱者 道之用 天下萬物 生於有 有生於無.”

30) 같은 책, <第16章>,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31) 같은 책, <第2章>, “有無相生 難易相成.”

32) 같은 책, <第58章>,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孰知其極 其無正 正復爲奇 善復爲妖.”

졌다.

셋째, 도는 억지로 함이 없는 무위(無爲)의 도라는 것이다. 노자는 상식적인 인의(仁義)와 도덕에서보다 무위를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만사를 포함한 대도(大道)는 무위이며, 무위에 돌아가면 세상에는 아무런 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라’ 고 하였다.

여기서 무위는 “도는 언제나 무위이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 의 무위이고, 자연은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天法道道法自然)” 의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노자의 도 사상은 모든 거짓됨과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사상이라 하겠다. 그것은 도는 볼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으며, 또 그것은 영원하며 말로 나타낼 수도 없으며, 그리고 ‘무’의 상태에서 최고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땅에 따르고 땅은 하늘에 따르고 하늘은 도에 따르고 도는 자연의 길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무위」(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는 「위무위」(爲無爲: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써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노자의 “도는 늘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못하는 일이 없다. 제후나 임금의 이 도를 지킬 수 있다면 천지 만물은 모두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고…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³³⁾ 라고 한 말에서, “도를 행하면 날마다 욕망이 줄어든다.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 억지로 함이 없는 무위의 경지에 이른다”³⁴⁾ 라고 한 말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때문에 성인(聖人)은 무위하므로 실패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으므로 잃지 않는다”³⁵⁾ 라고 한 말에서,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무위 자연이면 백성은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한 것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무위 무사이면 백성은 자연히 넉넉해지고, 내가 무욕이면 백성은 자연히 순박하게 된다”³⁶⁾ 라고 한 말에서,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유가사상이 인(仁)·의(義)·예(

33) 같은 책, <第37章>, “道常無爲 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天下將自定.”

34) 같은 책, <第48章>,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35) 같은 책, <第64章>, “爲者敗之 執者失之 是以聖人無爲故無敗 無執故無失.”

36) 같은 책, <第57章>, “聖人云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禮)·지(智)의 덕목을 설정하여 예교(禮敎)를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상쟁대립이 전제된 반면, 노자의 사상은 상쟁의 대립이 인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보고, 억지로 함이 없는 무위와 자연의 불상쟁(不相爭) 논리를 떠나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도는 도덕이라는 것이다. 도는 개인이나 사회가 혼란과 역경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도덕적 수양서로 활용되었으며, 민간신앙과 융합되면서 피지배계급에게 호소력을 지닌 사상 및 세계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노자의 “큰 덕의 모습은 도를 따라 나온다”³⁷⁾라고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사람이나 사회 그리고 나라의 모든 잘잘못은 도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느냐, 도를 그 내용으로 하느냐, 도를 체득하여 참되게 실천에 옮기느냐에 따라 최고의 경지 여부가 판가름된다는 것이다.

노자는 도덕적 수양으로 ‘부드러움’을 지키고,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노자의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³⁸⁾, “천하에 물보다도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³⁹⁾라고 한 말과 “최상의 덕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못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만족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사람은 지반이 튼튼한 땅을 선택해야 좋고, 생각은 뜻이 깊어야 좋고, 벼는 어진 사람이 좋고, 말은 믿음성이 있어야 좋고, 정치는 잘 다스려져야 좋고, 일 처리는 능숙해야 좋고, 행동은 적당해야 좋다.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⁴⁰⁾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하나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도는 행하기는 하나 다투지 않는다”⁴¹⁾라고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노자는 인간 처세의 좋은 방편으로서 언제나 부드러움을 가질 것과 다투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심지어 노자는 강한 것을 물에 비유, “약한 것이 도의 작용”(弱者道之用)이라고까지 하였다. 또 노자는 “낳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고도 으시대지 않는다

37) 같은 책, <第21章>, “孔德之容 唯道是從.”

38) 같은 책, <第52章>, “守柔曰強.”

39) 같은 책, <第78章>,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

40) 같은 책, <第8章>,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政善治 事善能 動善時 夫唯不爭 故無尤.”

41) 같은 책, <第81章>, “天地道 利而不害 聖人之道 爲而不爭.”

”,⁴²⁾ “역지로 하는 자는 일을 망친다”(爲者敗亡) 라고 하면서, 성인은 무위의 태도로써 세상사를 처리해야 함을 가르친 도덕적 수양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노자의 도 사상은, 도는 보려고 하여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만물의 근본이며, 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쉬없이 하며, 도는 역지로 함이 없는 태도로 세상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행하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무위(無爲)이며, 도로써 몸을 수양하면 그의 덕이 참된 것이 되고, 그것으로 집안을 다스리면 그의 덕이 충만하여 여유가 생기며, 그것으로 고을을 다스리면 그의 덕이 커질 것이며,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의 덕이 풍족해질 것이며, 그것으로 천하를 다스리면 그의 덕이 넓어질 수 있다는 도덕적 수양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자의 도

장자 역시 정확히 언제 태어났으며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치 않다.⁴³⁾ 다만 맹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으며, 전국시대의 말기 주(周)의 왕권이 땅에 떨어져 제후가 득세를 하고 군웅의 할거로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살았다고 전해질 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장자의 도 사상은 사회의 모든 예속과 제도 등을 전혀 무시하였으며, 정치적 현실은 물론 심지어 인간의 생존 자체까지도 초월하려는 초인간적·초현실주의적 생각, 즉 현실문제보다 형이상학적인 우주관 및 인생관을 담고 있었다.

장자는 우주의 본체를 도로 본다. 만유는 비롯한 데가 있고 그 비롯한 당초에 비롯한 데란 없다고 전제하고, 무시(無始)가 곧 도이며 유상(有象)은 무상(無象)에서 근거한 것으로, 무상이 곧 도라고 하였다. 또 장자는 삶을 하

42) 같은 책, <第2章>, “生而不有 爲而不恃.”

43) 『史記』, <老莊申韓列傳>에서, 莊子를 이렇게 말한다. “장자는 蒙人(필자 주: 지금의 河南省 歸德)이다. 이름은 周이며 그는 蒙의 漆園吏를 지냈으며 梁惠王, 齊宣王과 같은 시대였다. 그의 학문은 들여다 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요지는 본래 老子의 말에 돌아갔다. 그러므로 그의 저서 十餘萬言은 대체로 거의 寓言이었다.” (莊子者 蒙人也 名周. 周嘗爲蒙漆園吏 與梁惠王 齊宣王同時. 其學無所下窺 然其要本歸於老子之言. 故其著書十餘萬言. 大抵率寓言也.): 鄭仁在 譯/勞思光, 中國哲學史(古代篇)(서울: 探求堂, 1995), p. 234

나의 꿈으로 전제하고, 삶의 세계보다 죽음의 세계를 예찬한다. 그 예로, 장자는 그 부인이 죽자 물동이에 바가지를 얹어 놓고 두드리며 노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장자가 죽은 자기 부인 앞에서 “그대는 이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아무 것도 거리낄 것 없는 즐거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축하까지 한 것을 볼 때, 그는 죽음의 세계를 무위(無爲)·무우(無憂)의 세계로 보았다고 할 수 있겠다.

장자는 도를 근본의 뿌리로 본다. 도는 “생각하는 것이 없고 헤아리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도를 알고, 사는 곳이 없고 일삼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도에 편안하고, 따르는 것이 없고 말미암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도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장자는 도란 “없는 곳이 없다. 땅강아지와 개미에도 있다. 기장이나 피(稗)에도 있다. 기왓장이나 벽돌에도 있다. 땡이나 오줌 속에도 있다”고 하였다. 또 장자는 ‘지(知: 지식)와 무위위(無爲謂: 자연)와의 대화’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헤아리면 도를 알 수 있는가? 어떤 곳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면 도에 편안할 수 있는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말미암으면 도를 얻을 수가 있는가?”⁴⁴⁾ ‘지와 황제와의 대화’를 통해 “생각하는 것이 없고 헤아리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도를 알고, 사는 곳이 없고 일삼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도에 편안하고, 따르는 것이 없고 말미암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도를 얻을 것이다”⁴⁵⁾라고 하였다. 또 장자는 “도를 잃은 뒤에 덕이 생기고, 덕을 잃은 뒤에 인이 생기고, 인을 잃은 뒤에 의가 생기고, 의를 잃은 뒤에 예가 생기는 것이니, 예는 도의 헛된 꽃으로서 어지러움의 시작이다”⁴⁶⁾ “도를 닦으면 모든 헛된 것은 날로 떨어질(損) 것이다. 그것을 덜고 또 덜면, 무위에 이를 것이니, 무위이면 도리어 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⁴⁷⁾라고 하였다.

장자의 도는 이와 같이 노자의 도와 마찬가지로 그 정체가 허, 무, 무명,

44) 『莊子』, <知北遊>, “知謂無爲謂曰, 予欲有問乎若. 何思何慮則知道? 何處何服則安道? 何從何道則得道?”

45) 같은 책, 같은 곳, “黃帝曰, 無思無慮 始知道. 無處無服 始安道. 無從無道 始得道.”

46) 같은 책, 같은 편, “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禮者 道之華而亂之首也.”

47) 같은 책, 같은 곳, “爲道者日損. 損之又損之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也.”

무시하면서 그 존재의 성격은 무위자연이며, 천지 자연 질서의 근본인 것이다. 즉 장자의 도는 천지 이전의 형이상학적 우주의 본체로서 무위자연의 대원칙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장자의 도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도가 하늘을 낳고 땅을 낳았다는 것이다. 장자는 말하기를, 도는 천지와 근본이 같고 만물과 일체이며, 지도의 본체는 무능 무형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생각으로 추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또 <대종사>편에서, “대개 도에는 움직임의 처음도 있고 움직임의 끝도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움직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마음으로 전할 수는 있으나 손으로 받을 수는 없다. 마음으로 얻을 수는 있으나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그것은 스스로 머리가 되고 스스로 뿌리가 되어,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의 옛적부터 존재해 왔다. 귀신과 천재를 신으로 만들고, 하늘을 낳고 땅을 낳았다” 48)고 하였다. 이 말은 도란 비록 그윽하고 고요하여 형상을 볼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껴 알 수도 없긴 하지만, 천지가 생기기 이전인 태고로부터 있어온 영원 무한한 것으로 천지만물의 근본이 되고 존재 자체가 된다는 것이다. 또 도는 신령스러운 힘을 신이나 영혼(상재)에게 주었으며, 하늘과 땅을 비롯한 천지만물을 낳게 한 실존적 본체가 바로 도라는 것이다.

둘째, 도는 만물이 비롯되는 바라는 것이다. 도는 하늘과 땅을 비롯해 천지 만물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운동 변화를 지배하는, 즉 천지 만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법칙이라는 것이다. 『장자』 <어부>편에, “도란 만물이 모두 그것을 말미암는 것이니, 만물이 이것을 잃으면 죽고 이것을 얻으면 사는 것이다.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거스르면 실패하고 이것을 따르면 성공하는 것이다” 49) 라고 하였다. 즉 도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고 맑아서 흐리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만물에 널리 행해지는 것이 도로서 음양의 변화와 사계절의 교체도 모두 도의 표현 형식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지에는 천지 변화의 도가 있고, 사람에게에는 사람 변화의 도가 있다. 그러

48) 같은 책, <대종사>, “夫道 有情有信 無爲無形. 可傳而不可受 可得而不可見. 自本自根 未有天地. 自古以固存 神鬼神帝 生天生地.”

49) 같은 책, <漁父>, “道者 萬物之所由也. 庶物失之者死 得之者生. 爲事逆之則敗 順之則成.”

나 자연의 행로를 따라가면서도 그 까닭을 모르는 것이 도이기 때문에 사람은 직접 도의 작용을 감지할 수 없다. 따라서 천지 만물의 생성 발전 변화하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도로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셋째, 도는 진인(眞人)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즉 도에 통하면 진인이 된다는 사상이다. 진인이란 도가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일컫으며, 도인(道人) 또는 신인(神人)이라고도 말한다. 장자는 <大宗師>편에서, 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진인이란 “역경을 거스르지 않으며, 성공을 뿔내지도 않으며, 또 구태여 일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 잠을 잘 때에도 꿈을 꾸지 않고 깨어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른다.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떠나가도 거역하지 않는다. … 그 행동이 의로워서 당파를 짓지 않고 모자란 듯하면서도 남에게 비굴하지 않는다. … 법으로 정치의 바탕을 삼고 예로써 교화의 날개를 삼는다. … 좋아하는 것도 하나요,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다. 하나인 것도 하나이지만 하나 아닌 것도 하나다. … 이런 이를 진인이라고 일컫는다”⁵⁰⁾ 라고 하였다. 따라서 진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죽음과 삶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막힘과 뚫림, 이름과 어긋남, 얻음과 잃음, 평안함과 위태로움 따위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며,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며, 도가 바로 이러한 진인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자의 도 사상은, 도가 하늘을 낳고 땅을 낳았으며, 만물이 비롯되는 바이며, 진인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없어져도 정신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도는 영원하며 사람됨도 영원하며 인격도 영원하며 생명도 영원하며 불도 영원하며 하늘도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육체의 생사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가며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인격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하여 도인은 생(生)도 자기를 위한 생이며, 사(死)도 자기를 위한 사라고 생각하기에, 도인은 생사에 대하여 절대로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을 즐기고 사

50) 같은 책, <大宗師>, “古之眞人 不逆寡 不雄成 不謏士. … 其寢不夢 其覺無憂. … 不知悅生 不知惡死. 其出不訴 其入不距. … 其狀義 而不朋. 若不足 而不承. … 以刑爲體 以禮爲翼. … 是之謂眞人.”

를 두려워하기보다 생사를 넘어서 생사를 즐길 수 있는 삶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이다.

장자의 <제물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이론'이라는 뜻이다. 장자 철학의 근본이라고 할 유일 절대(唯一絕對)의 '도'의 입장에서 현실 세계의 갖가지 현상, 그 중에서도 시비(是非) 선악(善惡) 미추(美醜) 정사(正邪) 화복(禍福) 길흉(吉凶) 각몽(覺夢) 생사(生死) 등을 명확히 구분하려 하는 상대적 가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가를 뚜렷이 밝히고, 하늘 높이 날아 오르는 대붕(大鵬), 즉 절대자(자유인)의 조건은 만물이 하나임을 깨닫고 궁극적인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장자는 그러한 절대자의 생활을 성립시키는 논리,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 근거를 또한 밝히려고 한다.

『장자』 <재유(在宥)>편에, “천에 밝지 못하면 덕에 전할 수 없고, 도에 통하지 못하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 무위하며 존귀한 것은 천도이고, 유위하며 누가 됨은 인도이다. 주인과 같은 것은 천도요, 신하와 같은 것은 인도이다. 천도와 인도는 차이가 매우 커서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말이 있다. 이 말은 천지인을 동등한 하나로 본 우리의 전통 사상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역시 인간 존중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자는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도를 체득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사물이 하나' (齊一)임을 알면, 인간은 상대적 가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으며, 또 모든 만물이 같은 도를 뿌리로 하여 파생되었으며, '도가 통하여 하나' (道通爲一)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인간은 그때부터 자유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유의 경지는 또한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장자는 도라는 개념을 내세워 모든 현실적인 인간 생활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유 해방을 실현하려는 고차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4. 불교에서의 도

일반적으로 종교의 창시자는 자신을 신으로 자처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아니면 다른 형태로 화현(化現)된 화신(化身)이라고 스스로 일컫는다. 이에 비해 불타(Buddha)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신이나 외적 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영감도 요구하지 않는다. 깨달음의 성취는 오직 인간적인 노력과 지성의 덕분이며, 모든 사람은 불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⁵¹⁾

불교에 의하면 인간의 위치는 지극히 높다. 인간은 스스로가 그의 주인이다. 그의 운명 위에 군림하는 보다 높은 존재나 권력은 없다.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안식처이다. 다른 누가 안식처가 되겠는가?” 라고 불타는 말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신의 안식처로 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거나 안식처를 구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스스로 해탈을 구하도록 가르치며, 용기를 불어넣고 북돋아 주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⁵²⁾

불교의 도는 해탈(解脫)과 니르바나(無餘涅槃)⁵³⁾의 희망으로 시작되어, 사성제(四聖諦: Cattāri Ariyasaccāni), 즉 고(苦諦), 집(集諦), 멸(滅諦), 도(道諦)에 이른다.⁵⁴⁾ 이 네 가지의 고귀한 진리가 불교 도사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도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모든 것이 고(苦)이며 괴롭다는 것이다. 즉 인생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괴로움에는 일반적인 괴로움, 변화에 의한 괴로움, 조건지어진 괴로움 등이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미워하는 사람이나 좋지 않은 조건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은 조건과 이별하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고 비탄에 잠기

51) Walpola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New York: Grove Press, 1962): 李載昌·역정·월포라 라후라 외,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p. 13

52) 李載昌·역정·월포라 라후라 외, 같은 책, p. 14

53) 니르바나(Nirvāna): 열반. 불교의 최고 이상. 생사를 초월해서 나고 죽음이 없는 법을 체득한 경지를 말한다. 열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도의 완성,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 불생(不生), 불멸, 감로(甘露), 공(空) 등이 있다.

54) 같은 책, pp. 29~31

고 곤궁에 처하는 삶의 모든 괴로움 등 모든 형태의 물질적·정신적 괴로움을 ‘일반적인 괴로움’ (苦苦性)이라 하고, 삶의 행복한 느낌, 행복한 조건 등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변할 때 나타나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변화에 의한 괴로움’ (壞苦性)이라 하고, 색온(色蘊)·수온(受蘊)·상온(想蘊)·행온(行蘊)·식온(識蘊), 즉 오온(五蘊)에의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을 ‘조건지어진 괴로움’ (行苦性)이라 한다. 이들 괴로움 가운데서도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죽음이다. 석가모니 부처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출가하였으며,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모습만 그러한 것이고 실제로는 괴로움은 숨겨둔채 느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 인간 자신의 집체 즉 잘못된 집착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갈애(渴愛), 탐욕(貪慾)을 가져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서는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欲愛), 존재와 그 형성에 대한 갈망(有愛),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無有愛) 등을 갖는다. 이러한 인간이 갖는 탐욕과 욕망, 갈애와 열망 등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온갖 괴로움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괴로움이 인간의 원죄에 있다고 한다. 원래 인간은 창조주의 모습과 인격을 본따 만든 것이어서 괴로움이 없는데, 그 창조주의 섭리를 거역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이 잉태되었고, 그 후손인 우리들도 괴로움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당으로 가려면 창조주를 영접하고 그 섭리에 따라야 한다. 이에 반해 불교에서는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탐욕과 욕망, 갈애와 열망 등을 둘러싼 우리 자신의 잘못된 집착, 즉 삶과 삶의 지속과 멈춤이 조건성·상대성·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십이연기(十二緣起)⁵⁵⁾의

55) 「12緣起」란 불교의緣起說의 하나로 12因緣이라고도 한다. 과거·현재·미래의三世輪廻를 12의 항목으로 설명한다. 원시 불교 때부터 있던 사상이다. 無明緣行(무지로 인해서 의도적 행위와業이 형성), 行緣識(의도적 행위를 통해서 의식이 생김), 識緣名色(의식을 통해서 정신이 생김), 名色緣六入(정신-물리적 현상이 생김), 六入緣觸(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서 감각적·정신적 접촉이 형성), 觸緣受(감각적·정신적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생김), 受緣愛(느낌을 통해서 탐욕이 생김), 愛緣取(탐욕을 통해서 집착이 생김), 取緣有(집착을 통해서 존재의 형성 과정이 생김), 有緣生(존재의 형성과정에서 태어남이 생김), 生緣老死(태어남을 통해서 늙고 죽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과정이 생김) 등을 가리킨다. 인간의苦的 발생 원

법칙을 통해 반복적으로 순환되면서 괴로움이 형성된다고 한다.

셋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탐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집착을 끊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탐욕을 없애면 괴로움이나 고의 지속에서 해탈하고 벗어나게 되어 자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을 멸성제(滅聖諦: Dukkhanirodha-ariyasacca)라고도 하며, 바로 열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팔리어 경전에는 “열반은 탐욕을 완전히 끊는 것이며 탐욕의 버림이며, 탐욕의 포기이며, 탐욕에서 벗어남이며, 탐욕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모든 조건지어진 것이 고요해지고, 모든 더러움이 없어지고 탐욕이 꺼져버린 이욕(離欲), 소멸 그것이 열반이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열반은 탐욕의 종식, 즉 애진(愛盡: Tanhakkhya)이며, 진리 열반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 그것은 모든 강박관념, 괴로움, 남을 괴롭히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있으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또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기 때문이다.

넷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은 중도(中道)라는 것이다. 즉 부처는 감각의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거나, 또는 괴로움을 극복하는 자기 억제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감각의 즐거움을 통한 행복의 추구는 매우 저속하고 일반적이며 유익하지 못한 속인(俗人)의 길이기 때문이며, 자기 억제를 통한 행복의 추구는 매우 고통스럽고 무가치하며 유익하지 못한 고행주의자(苦行主義者)의 길이기 때문이다. 해서 부처는 이 두 극단적인 수행을 버리고 안목과 지혜를 열어 주고 적정(寂靜)·통찰(洞察)·깨달음(覺)·열반(涅槃)으로 이끄는 중도를 개인 삶의 지표로 삼으라고 하였다. 또 중도는 여덟 가지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팔정도(八正道)⁵⁶⁾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직 고통의 극복에 관한 가르침이 불교의 핵심적 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성제는 그 해석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여도, 대승에서도 잘 설파되는 가르침이다. 화엄경에서도 사성제품이 있어 여래의 모든 가르침은 이 사성제에 귀결된다고 하였다. 불교는 무지가 극복되고 지

인과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말한다.

56) 八正道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장에 나오는 「불교의 수행양상」을 참조.

혜와 깨달음을 이루면 그것을 인으로 하여 고통이 소멸된다고 본다. 인간은 불교가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고통 극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볼 때 불교는 절대적인 자연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생들은 고통을 회피하고 극복하고자 하나 그 지혜가 없어 윤회속에 고통을 반복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불교의 도사상이다.

5. 기독교에서의 도

기독교 사상의 중심 개념은 영생,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등의 용어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세계, 즉 도(道)의 세계를 말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도는 생명 등 미래에 속한 것들을 향해 개인은 물론 사회나, 국가, 그리고 천하가 모두 이에 따라 행동하고 인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독교 사상은 하나같이 인간의 몸과 영혼의 전인적(全人的)인 부활 즉 영생을 말한다.(고린도 후서 5: 1~4) 이 말은 기독교 사상의 진리를 깨닫고 이를 체득하고 그것을 실현하면 인간 삶의 목적인 영생, 즉 몸과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다.

기독교의 도는 죽음과 내세생활의 희망으로 시작되어, 불멸과 부활, 세계의 완성 등 여러 관념에 이른다. 즉 개인의 죽음, 심판, 천당(天堂), 지옥과 연옥(煉獄) 등을 비롯해 그리스도의 재림(再臨), 사자 부활(死者復活), 공심판(公審判) 등 세상의 종말론이 기독교 도사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도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인간의 종말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두려운 사건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삶과 상반된 개념으로 생명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의 현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 죽음은 직관할 수도 없고 그 정체를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죽음은 개인 삶의 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완성이 되기도 한다.

당사자의 원의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죽음은 모든 인류가 가진 하나의 공통된 숙명이다. 성서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열왕기 2: 2)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죽음은 세상 모

든 사람이 가야하는 길이며 스스로 맞이하는 길이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에워싸고 있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삶 속으로 파고들어 삶을 의문에 처하게 한다.⁵⁷⁾ 질병, 고독, 실패, 방치, 이별, 은퇴나 노화, 실직과 기아 등은 모두 죽음의 표징이나 예고일 뿐 아니라, 삶 자체에 실존하는 죽음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죽음을 통하여 마침내 인간은 궁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삶 가운데에 현존하고 있으며, 삶은 죽음에 의해 관통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죽음은 원죄의 결과라는 것이다. 성서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으며 의롭고 완전했으나, 아담의 범죄와 타락이 전 인류의 파멸을 초래했다고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았으며(지혜 1: 13), 악마의 시기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며(지혜 2: 23~24), 이승의 불가피한 죽음은 아담의 죄에서 비롯된 것(창세기 2: 17; 3: 19)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원죄는 아담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善惡)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 16~17)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육체와 영혼의 죽음이 그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바로 죄의 열매이며 그 결과이며 또 그 대가(로마 6: 16, 21, 23)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죽음은 자연적인 운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의 박탈적 성격, 즉 죄는 인간 속에 탐욕(로마 7: 7)을 공범자로 가지며, 탐욕은 죄를 낳고 죄가 죄와 죽음을 낳는다(야고 1: 15)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영생, 즉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그 자체로 소멸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는가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한 관심은 주로 불멸과 부활의 형태로 나타난다. 불멸(不滅)이란 인간은 죽은 뒤에도 소멸하지 않고 다만 육체와 분리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

57) 심상태 역/G. 그레사케, 종말신앙: 죽음보다 강한 희망(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0), pp. 75~78 : 종교문화연구원 편,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창, 1993), p. 425

는 신앙이며, 부활(復活)이란 인간이 죽은 뒤에 다시 생명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현상, 즉 존재를 회복한다는 신앙이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헬라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두 신앙이 하나의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즉 인간은 죽은 뒤에도 육체와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나, 결국 형체화된 형태로 존재를 회복한다는 것이다.⁵⁸⁾

육체의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부활하고자 하는 소망은 기독교가 갖는 특별한 신앙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4절에서 언급한 바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몸과 영혼의 전인적(全人的)인 부활로 바로 영생을 말한다. 즉 헬라 철학적 불멸은 영혼의 불멸만을 주장하는 데 비해, 기독교적 불멸은 육체와 영혼 모두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것이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죽음과 더불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소생하며, 악인(惡人)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그리고 의인(義人)은 영생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⁵⁹⁾ 따라서 육체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 교리로 생각된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존립할 수 없으며, 부활이 없으면 내세에 대한 소망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모두 생명의 선물을 받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죽어가고 있으며 죽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언젠가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킨바 되면” (고린도후서 5: 4) 다시는 병과 고통과 죽음이 전혀 없게 되며 의사도 병원도 모두 필요 없게 되는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인간에게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절망과 고통, 빈곤과 죽음 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희망을 갖는다. 인간은 희망을 갖는 가운데 현세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향수, 즉 자신의 마지막이 올 미래를 향한 희망과 동경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현재보다 더 나은 자기 자신, 궁극적으로는 자기 완성을 소망하면서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58) 목창균, 종말론 논쟁(서울: 두란노, 1998), p. 47

59) Augustine, Christian Doctrine, chap. 21.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First Series*, vol. 11(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p. 527

그리스도인은 대개 인간의 삶에 내재하는 보편적 희망의 체험에 근거하여 인간과 세계의 최후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의미와 모든 인류의 희망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후의 부활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는 미래 희망은 차안과 피안의 세계를 분리함이 없이 역사적 책임을 지는 가운데 이 세계 안에서 세계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한다. 예수는 우주론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종말에 관해서 가르치기보다 도래한 세계적 종말에 직면해서 현재 안에 작용하는 희망의 눈으로 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적 희망은 현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자세로 임하도록 하는 하나의 지평을 열어 보인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현세의 희망을 경멸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그러한 희망의 추구에 협력하고 이를 비판하여 완성시킨다.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은 지금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만사를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유하게 된다.⁶⁰⁾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의 구체적 미래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절대 신비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임을 믿는다. 이 하나님 사랑의 미래는 인간에 의해 기획되고 성취되는 이 세계로부터의 미래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위해 선물로서 다가오는 미래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형성된다. 사랑은 인간이 영원히 생존하기를 바라는 힘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적 희망은 인간 구원이 성취된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며, 인간 자체가 구원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다. 성서는 창조를 하나님의 첫 역사적 행위로 묘사한다. 또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제시하는

60) 심상태, 인간-신학적 인간학 입문(서울: 서광사, 1989), pp. 308~313

역사의 위대하고 유일한 주제는 바로 생명이라고 한다.(창세 1: 21~27; 2: 7; 묵시 22: 17~19) 생명은 본질상 하나님의 선물이며,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새롭게 부여하는 장소가 된다. 이 선물은 동시에 자유의 선물이다.⁶¹⁾ 역사는 절대로 동일시할 수 없는 양극, 즉 생명의 수여자, 수호자, 주인으로서의 하나님(1사무 17: 26)과 모든 주어진 생명의 정상(頂上)이며 대표인 인간 사이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선사하시는 자유와 인간의 선사받는 자유 사이에서 동반자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⁶²⁾

성서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느님’, ‘살아계신 분’ (출애 3: 14; 여호 3: 10; 1열왕 19: 4; 시편 42: 3; 예레 2: 13; 다니 6: 27)으로 표현한다.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신의(信義)에 대한 신앙에 근원을 둔다. 역사 안에 이루어진 당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에 의하여 생명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생각을 일축한다. 신앙의 가르침은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인간에게 신뢰를 주는 신실한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계속 부여하리라는 신앙을 강조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요한 3: 15~16; 5: 24; 6: 39~50; 11: 25~26)고 한 말 등은 바로 인간 생명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말들이다.

여섯째, 하나님만이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 죽음의 해방은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생명 자체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죽음의 권세가 인간에게 미칠 때,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시편 6: 5; 13: 4; 116: 3) 죄인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나, 인간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살기를 바란다.(에제 18: 33; 33: 11)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죽음에서 구하고 싶다 하더라도 인간 자신의 협력없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61) 종교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pp. 451~454

62) 같은 책, pp. 451~452

성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만드시지 않았던 죽음을 영원히 멸하게 되며(이사 25: 8), 명부의 먼지에서 잠자던 의인들은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며, 악인들은 명부의 영원한 번을 속에 머물게 된다.(다니 12: 2; 이사 26: 1~9) 따라서 인간의 영생은, 즉 인간 죽음에 대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만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서는 강조한다.

이와 같이 모든 역사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신의에서 시작되고, 또 거기서 끝나므로 역사의 목표인 '마지막 날'은 역사의 단절, 끝이 아니라 완성의 차원을 갖는다. 즉 역사의 완성이란 반드시 역사의 최후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히 계속될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간 구원의 영원한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도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완성을 목표로 하면서, 인간 구원이 성취된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며, 인간 자체가 구원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6. 대순진리회에서의 도

대순사상에서는 역사를 천존시대(天尊時代), 지존시대(地尊時代), 인존시대(人尊時代)로 나누고, 천존시대와 지존시대를 선천(先天)시대라 하고 인존시대를 후천(後天)시대라 한다. 선천시대는 상극 원리에 의해 투쟁과 모순이 만연되어 있으며, 인간 환경이 파괴되어 균형과 조화를 잃고 있어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또 현대 사회는 변화가 급속하고 새로운 질서와 원리가 필요한 시대라고 한다.

대순사상에서의 대순이란 영원과 순환을 의미한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것이며, 순환이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이다. 대순이란 우주의 원리는 도수(度數)이며, 도수는 삼계(三界)를 순환하는데, 신명(神明)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순환의 원리가 대순사상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천지공사를 통해서 우주를 새로운 질서로 조화하고자 한

다. 하늘, 땅, 사람의 삼계에서 하늘과 땅의 운도수(運度數)에 부정과 불응이 생겨서 우주 안에 있는 신명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에 상극이 벌어져 진멸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극은 삼계가 원한을 갖고 있으며, 인간 사회도 안정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삼계의 진멸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선경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 천지공사이며 또한 대순사상의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도는 이상사회와 후천선경의 희망으로 시작되어, 종지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을, 신조로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사강령(四綱領)과 성(誠) 경(敬) 신(信)의 삼요諦(三要諦)를, 목적으로 무자기(無自欺)-정신 개혁·지상 신선 실현-인간 개조·지상 천국 건설-세계 개혁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순진리의 기본적 도사상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도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만물은 음(陰)과 양(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은 덕(德)으로 합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음양합덕(陰陽合德)⁶³⁾이라고 한다. 대순지침에는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경위이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⁶⁴⁾고 명시되어 있다. 증산은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⁶⁵⁾ 라고 했다. 이 말은 후천 선경을 이룰 변화의 길(道)을 찾는 것은 바로 음양합덕에 의해서 가능해짐과 동시에 모든 만물의 변동 과정은 반드시 대립적인 두 성질이 서로 밀고 당김에 따라 생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한 대립적인 성질 중의 하나는 음(陰: --)이고, 그것의 다른 하나는 양(陽: -)이다. 모

63) 음양합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救援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참조

64)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18

65) 상제가 전주 이치안의 집에 써놓았던 고견 원려 왈지(高見遠慮曰智)란 글 속에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 …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란 글귀가 있다.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제생: 43.”,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309

든 사물과 일의 형세가 이 두 가지 음과 양의 결합, 즉 덕으로서 교감·합덕할 때 가능한 것이다. 덕으로서 합덕하면, 만물이 화생하고 형통하고 모두 빛나게 된다. 그러나 덕으로서 합덕하지 못하면,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하지 않아 만물을 생하지 않게 되고, 또한 만물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음과 양이 덕으로서 잘 조화되어 교감하면 만물이 화생하여 태안(泰安)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불흥(不興)하고 불통(不通)하게 된다. “강유(剛柔)가 서로 밀어서 변화가 생긴다”⁶⁶⁾거나 “강유가 서로 미는데 변화가 그 속에 있다”⁶⁷⁾고 하는 것이 이를 말한다.

증산은 천지공사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건곤, 음양이 각자 지니는 바른 덕이요, 양이 음을 받드는 태도와 교감의 운동이 정대(正大)해야 된다는 것이다. 천지의 큰 덕은 생명의 창달이며, 낳고 또 낳아 끊이지 않고 생성 소멸하며, 하늘과 땅의 교감에서 만물의 변화 생성이 일어나며, 만물이 그것에 의하여 자라는 것이다. 천도의 음양은 인도의 인(仁)이며, 일음일양의 도(道)도 따지고 보면 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음양이 그 덕을 합하면 강유가 생기며, 천리의 발현과 유행의 실제로 생기는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성장도 원활해진다. 그리고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이 하늘을 본받고, 하늘이 도를 본받고,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면 선천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발생한 분열과 혼란, 대립과 갈등, 불안과 저항 등도 사라지고, 인간세계는 질서와 안정, 설득과 이해, 관용과 토론, 승복과 합의 등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시대의 선경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대순의 도사상이다.

둘째, 신(神)과 인간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신인조화(神人調化)⁶⁸⁾라고 한다. 신인조화 사상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관념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한계 상황에서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며, 미래에 대해 어

66) 『周易傳義大全』, <繫辭傳>, “剛柔相推而生變化.”

67) 같은 책, <繫辭傳>, “剛柔相推 變在其中矣.”

68) 신인조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양무목, “救援思想으로서의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77) 참조

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사상이다. 증산 자신이 구천상제로서 신이었지만 재겁에 빠진 인류와 신명을 구제하고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성육신(成肉身)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바로 인간은 창조적 존재이며 천(天)도 되고 신(神)도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증산은 신을 음, 인간을 양이라 하고, 이 음인 신과 양인 인간이 조화와 합덕을 갖지 못하면 인간계는 물론 신명계도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쟁만이 있게 되어 후천 선경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신인조화에 대해 대순진리의 『전경』 <음양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신령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신은 음이요 사람은 양이다. … 천지의 일이 모두 이 음양 중에 만물의 이름이 있으니 모두 이 음양 중에 마침내 천지의 음양이 변한다. 신인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神人)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기다려 밝아지고, 사람도 신을 기다려 밝아진다.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 69)

증산은 “사람이 없으면 하늘과 땅도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하늘과 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쓴다”, “사람은 양이 되고 신은 음이 되니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고 한 말 등은 모두가 신과 함께 인간 개체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신은 신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각각의 특이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은 인간의 특이성과 존재 가치를, 인간은 신의 특이성과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한 신인의 감응과 교감이라야 진정한 「조화」 속에서 천도도 지도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써 가장 존중 받아야 하며, 신과 같은

69)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앞의 책, “교운: 2-41.”, p. 207: “有神有人神陰人陽 …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成神明族人人族 神明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 地道成神事成而人事成人事成而神事成.”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대순의 도사상이다.

셋째, 서로 원한을 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원상생(解冤相生)⁷⁰⁾이라고 한다. 해원상생 사상은 갈등과 반목, 정복과 약탈, 전쟁과 과멸의 상극(相剋)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인류 구원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 비교적 깊이있는 성찰의 효과를 거둔 종교로 평가받는 불교는 연기연생(緣起緣生)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 고통이 인간의 집착(執着)과 갈애(渴愛)에서 시작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막에서 출발한 종교인 기독교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原罪)를 지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에 비해 해원상생 사상은 추상적 원죄나 연기연생론과 달리 개인, 사회 구성원, 인류 전체가 각자의 내면에 도사린 원통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둔자적(隱遁者的)인 자기 성찰의 소극적 입장이나 맹목적 자기 희생의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도 살고 자기 자신도 더불어 살게 되는 상생(相生)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해원상생에 대해 대순진리의 『전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공사: 1~3)

또한 증산은 우주가 형성되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극의 창조 원리가 작용함으로써 원한과 갈등이 쌓여 왔음을 적시하고, “선천에는 천지에서 상극의 진리로 인간과 만물을 길러내므로 인간의 모든 일이 도의에 어그러져

70) 해원상생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楊茂木, “통일기반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참조

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있다” 고 밝힌 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풀어 놓아 각기 인간의 자유행동에 맡기어 먼저 난법시대를 열어 놓는다” 고 침언하였다.

그런 뒤,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인류 종말의 위기에까지 빠진 인간을 비롯 모든 삼라만상의 원한을 풀어 생명을 구원하여 “이제 상생의 도로써 천지를 배벽하여 새 세상을 펼리라” 고 강조한다. 이 말은 해원상생 사상이 바로 후천개벽의 선경(仙境) 즉 지상천국을 이룰 원리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대순의 도사상이다.

넷째, 도(道)를 깨닫고 도에 통하면 참다운 경지인 선경(仙境)에 이른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도통진경(道通眞境)⁷¹⁾이라고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은 선천세계부터 쌓인 원한의 축적이 현실 세계에 터져나오기 때문에 일어난다. 상극의 세계에서는 신분의 격차, 성차별,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원한이 천지에 넘치는 세상을 보다못해 증산은 법신으로 나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 그리고 신인조화라는 인류 구원사상을 제시했고, 천지공사를 통해 이를 뜯어 고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청정한 마음으로 도를 깨닫고 도에 통하지 못하면 선경사회 즉 후천선경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도가 인간의 세계를 떠나 있지는 않다고 할 때 도의 세계는 곧 바로 인간의 길이며 인간의 길이 곧 도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순의 도사상은 우주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법칙이며,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한다. 즉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사상이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진리를 추구해가는 사상이다. 대순사상은 생명에 대한 인간 존중 사상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에는 생기를 가득 차게 하는 사상이다. 도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도라고 이름짓는 것마저도 도가 아닌 절대의 세계를 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어디에나 항구히 존재하면서 변화하고 유행(流行)하는 가운데 우주를 이루고 만물을 낳는다. 천지가 변화함에 있어서 어느

71) 도통진경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楊茂木, “宗教와 文學을 통한 道通眞境思想의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참조

것 하나 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도는 만물을 이루는 근간이 되며 그 바탕에는 음과 양의 조화가 자리하고 있다. 도는 은둔자적인 자기 성찰의 소극적 입장이나 맹목적 자기 희생의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도 살고 자기 자신도 더불어 살게 되는 상생(相生)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음양 합덕과 해원상생을 통해 신인조화를 이루고 마침내 후천의 선경을 세워나간다. 즉 도를 알고 나면 음양합덕, 해원상생, 신인조화 등 도통을 구현하기 위한 단계를 거쳐 마침내 인류의 이상향 실현인 도통의 진경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대순의 도사상이라 하겠다.

Ⅲ. 인간의 구원과 수도

1. 종교와 인간 구원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의 표현이다. 인간의 자기 자신과 우주에 대한 끝없는 물음이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의 모색이다. 그러나 인간이 종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무엇일까? 그 물음에는 대개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는 우주와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둘째는 인간이 가장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또 맺어야만 하는 실재는 무엇인가? 셋째는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넷째는 인간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물음은 지적인 물음, 혹은 종교 철학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들 밑바닥에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다. 구원에 대한 이 물음은 바로 인간 행동의 문제이며 종교 양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물음에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상태와 방향을 묻는 물음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을 묻는 물음이 포함된다. 따라서 인간 구원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전제로 하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행동으로써 실행하는 것이 종교이며,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뒷받침하는 행동 양식이 바로

「수도」(修道)이다.

2. 수도와 인간 구원

수도(修道)란 어의대로 따져보면 그저 '도를 닦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수도를, 삼도(三道)의 둘째 단계로서 감정이나 의지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려고 되풀이해서 수행하는 단계라고 한다. 또, 대순사상에서는 수도를,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奉祝)하는 것”⁷²⁾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수도란 늘 마음과 몸을 고요히 하며 정심(正心)에 이르도록 하여 상제를 모시고 영통의 통일을 위해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받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수도(修道)는 인간 삶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며, 바람직한 삶의 양태를 규정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수도가 무엇인지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갈등과 욕구불만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시키느냐에 따라 수도의 효용을 논할 수 있다. 인간과 우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인간의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으로 수도의 과정과 참뜻을 분별할 수도 있다. 인간이 수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대답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는 물론 우주적 질서에 합당한 것인지, 나아가 유한한 인간 삶의 종말은 어떻게 결말을 볼 것인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⁷³⁾ 첫째, 연마(鍊磨: purgative)의 단계이다. 이를 자기억제의 단계라고도 한다. 이 단계는 나쁜 태도, 악한 생각, 세속적인 정욕 등 인간의 여러 가지 탐욕과 마음의 번뇌를 억제하고 버리기

72)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69), pp. 15~16

73) W. R. Inge, *Christian Mysticism*(New York: Scribner, 1899) 참조

위해 갈고 닦아야 함을 말한다. 이 단계를 위하여 종교마다 악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들” (마태복음 15: 19), 불교 경전에서의 “열반은 탐욕을 완전히 끊는 것이며, 탐욕의 버림이며, 탐욕의 포기이며, 탐욕에서 벗어남이며, 탐욕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의 “지금 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⁷⁴⁾고 한 말 등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하겠다.

둘째, 깨달음(iluminative)의 단계이다. 깨달음은 어의대로 보면 뭔가를 깨치어 환하게 알아낸다거나 심령(心靈)이 진리에 통하는 것을 뜻한다. 깨달음은 정신의 통일과 정신력의 집중으로 마음 속의 빛을 더욱 밝게 하며, 그 빛을 통해 모든 사물을 아주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한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지혜와 통찰력이 생겨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악함, 선하지 못한 마음의 때, 질투와 증오와 어리석음 등이 말끔히 제거되고, 그로 인해 마음은 측량할 수 없이 커져 무한(無限)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불교 경전의 “마음을 잘 닦으면 지혜를 얻게 되며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성경의 “깨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3: 5), 대순사상의 “이제 말세를 당하여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⁷⁵⁾고 한 말 등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하겠다.

셋째, 통합(union)의 단계이다. 이를 도통의 단계라고도 한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초월적 차원과 내가 일치하게 되며, 황홀경을 체험하는 신비적 극치에 도달하게 된다. 즉 수도에 통하고 수도를 완성한 사람은 궁극적인 실재와 하나가 되는 자유와 해탈, 그리고 도통의 경지인 선경(仙境)에 이르는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도에 도통한 사람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며, 그로 인해 시공(時空)의 세계를 벗어나 초월적 존재를 향하여 그 뜻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활의 안정은

74)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법: 3-5” p. 246

75) 같은 책, “예시: 17.”, p. 315

물론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며,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열반이나 천당, 혹은 선경의 경지에 이르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IV. 「도의 완성」을 위한 여러 종교의 수행 양상

모든 종교는 도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의 완성은 개인 및 인류의 구원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도를 완성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수행관(修行觀)과 그에 따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개인의 노력에 의한 개인의 도의 완성과 신격체(神格體)에 의한 대중의 도의 완성 두 가지로 나타난다. 도를 완성하고 구원을 받기 위한 수행 양상은 역사의 변천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도의 완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적 정신적 세계와 현실의 물질세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종교가 도를 완성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노자의 수도 양상

1) 구원 과정에서의 도와 인간

(1) 도의 목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자는 궁극적 실재를 도(道)라고 지칭하면서, 도는 만물의 근본이며,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하며, 억지로 함이 없는 무위(無爲)이며, 또 도덕이라고 하였다. 즉 도는 궁극적 실재이면서 동시에 최상의 원리로서, 만물이 도로부터 나오고 도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며 다시 도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자의 도는 인간과 사회 형성 이전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즉 인간의 인식과 언어를 초월하는 무(無)의 차원에까지 심화되고, 인간 사회를 포함한 천지만물 전체에 차별없이 작용하는 우주적 원리로 확대되었다.

노자는 천하 만물은 유(有)로부터 나오고, 유는 무(無)로부터 나오며, 무명(無名)일 때의 도는 우주의 시원(始源)이라고 하였다. 무(無)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 전체에까지 차별없이 확장되며, 우주 생성 이전의 무한한 실재로까지 심화되며, 유를 생성시킴으로써 만물을 낳는 궁극적 시원이 된다. 그러기에 이름조차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초월적 근원인 무로서의 도(道)가, 보이고 들리며 잡을 수 있는 천지만물을 생성해 내면 그것이 바로 유(有)로서의 도가 된다는 것이다. 또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 만물은 음기(陰氣)를 포함하고 양기(陽氣)를 지녀서 혼연히 하나로 풀려 화합한다고 말한다.

노자는 유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며 도의 본래적 원리라고 하였다. 노자의 “유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것이 가장 견고한 것을 뚫고 들어간다. 형체가 없는 것이 틈이 없는 곳까지 침투한다. 나는 이런 까닭으로 무위(無爲)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⁷⁶⁾ “최상의 선(善)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⁷⁷⁾라는 말과 같이, 도의 힘은 유약하고 자신을 낮추는 원리를 통해 작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원리보다 유효하고 이로운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인간 처세의 좋은 방편으로서 언제나 부드러움을 가질 것과 다투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노자는 낳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고도 으시대지 않으며, 억지로 하는 자는 일을 망친다 라고 하면서, 성인은 무위의 태도로써 세상사를 처리해야 함을 가르쳤다.

노자는 분화된 봉건적 신분 질서와 그것에 의거한 유가적 윤리인 인(仁), 의(義), 예(禮), 지식(智), 그리고 재간(巧), 전쟁 등은 인위적인 것으로서 우주가 지닌 자발적이고 본래적인 것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노자의 다음 말을 보자.

“도는 항상 작위함이 없으나 하지 않음이 없다. 군주가 능히 그것을 지

76) 「老子」第43章,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無有入無間 吾是以 知無爲之有益.”

77) 같은 책,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킨다면 만물은 자발적으로 화육될 것이다. 이름 없는 박(樸)은 욕망이 없다. 욕망이 없으면 고요해진다. 그러면 천하는 자발적으로 안정될 것이다.⁷⁸⁾

노자의 무위(無爲)이 무불위(無爲而無不爲)란 말은 노자 『도덕경』 <제38장>의 “최상의 덕은 함(作爲)이 없으며,…” (上德無爲而無以爲)와 <제48장>의 “…줄고 또 줄어서 무위에 이른다. 무위의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을 성취한다.…”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라는 말 등에서 엿볼 수 있으며, 노자철학(장자철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됨)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자의 ‘무위(無爲)이 무불위(無不爲)’는 천지 자연의 조화를 설명함과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도를 자각하여 자기의 본래적인 자세로 돌아가라고 경고한 말이라 하겠다. 따라서 노자에게 있어서 도의 무위는 단순한 무위가 아니고 무불위의 무위이며, 성인의 무위가 또한 단순한 무위가 아니며 무불위의 무위를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자의 무위는 자발적이고 자기발생적으로 만물을 낳고 화육시키며 다시 복귀시키는 우주적 생명 원리와 합치하는 행위이다. 도의 움직임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성인의 무위, 무욕의 통치는 만물을 자발적으로 화육되게 하고, 이윽고 순수한 본연의 상태인 ‘박(樸)’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⁷⁹⁾ 노자의 박(樸)이란 말은 인간과 공동체가 무의식적으로(無知) 천지 자연의 순환과 더불어 공생하는 이상사회의 모습으로 박을 상징한 것이며, 인간과 사회가 도에서 괴리되지 않는다면 인간과 사회는 자연스럽게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상이다. 즉 노자의 무위는 논리적으로는 위(爲)→무위(無爲)→무불위(無不爲)로 전개되고, 무불위는 ‘위(爲)’의 부정으로서의 무위(無爲)에서 인도되기 때문이다.

78) 같은 책, <제37장>, “道常無爲 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無名之樸 夫亦將無欲 不欲以靜 天下將自定.”

79) 『老子』에서의 樸은 신비 체험적인 요소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특유의 정치 사회적 이념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상징이다. 樸은 無名·無欲의 원초적 道의 상태, 인위가 가해지지 않은 본래적 자발성의 상태로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되돌아가야 할 이상적인 상태로 상징되고 있다. 종교문화연구원 편,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창, 1993), p. 145

(2) 인위로 타락한 세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자의 도 사상은 형체 없는 형체와 소리 없는 소리가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 즉 도란 형체 있고 소리 있는 모든 것이 그 곳에서 생겨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의 근원에 있는 궁극적 실재였다. 노자가 말하는 본연의 세계는 있는 그대로 자족적이며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완성에 이르는 세계이다. 이러한 순수한 본연의 세계에는 악이나 재난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자는 인간 사회의 악과 타락은 오로지 인간의 의도적 작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노자가 생각하는 도는 천지 만물을 낳았지만 자기를 창조자로서 의식하지 않고, 인간을 비롯 새, 짐승, 또는 초목, 벌레, 물고기를 막론하고 어느 것 하나 차별하는 일이 없고, 부자나 가난뱅이 또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한 가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 앞에서는 온갖 존재, 즉 천지 만물은 모두가 평등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작위를 해서 도의 순수한 진행 과정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재난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노자의 다음 말을 보자.

“영원 불변한 것을 모르고 그릇되게 행동하면 흉(凶)하다.” 80)

“만족할 줄 알아야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81)

“어떤 것이든(萬物) 왕성해지면 곧 노폐한다. 이는 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도에 어긋나면 곧 앞길이 막힌다.” 82)

위의 말들은 무위 자연의 도를 체득한 성인의 평안한 처세와 지족(知足)의 처세, 그리고 조화의 원리 등을 말하고 있다. 무위 자연의 사상에서 벗어난 인간의 의도적 의식적 행위는 악(惡), 즉 흉(凶), 태(殆), 화(禍), 조이(早已) 등의 개인적 재앙을 가져옴은 물론 사회적 혼란, 즉 인간 사회의 타락과 혼란상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노자는 통치자의 수탈과 과욕, 강압적 법령, 전쟁 등을 인위적 악으로 규정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다시 말하면 노자

80) 같은 책, <第16章>, “…不知常 妄作凶…”

81) 같은 책, <第44章>, “是故 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82) 같은 책, <第55章>, “…物壯則老 是謂不道 不道早已.”

는 만물의 근원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알아서 망령되이 행동하지 말 것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신을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하려면 자신의 욕심을 눌러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분수를 지켜 자기의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자의 다음 말을 보자.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통치자가 세금을 과도하게 기두기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통치자가 작위하기 때문이다...” 83)

“세상에 금지하는 일이 많으면 백성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백성에게 예리한 무기가 많으면 나라는 더욱더 어두워진다. 사람에게 기교가 많으면 기이한 물건이 더욱더 많아진다. 법령이 많이 발표될수록 도적이 많아진다.” 84)

“도로서 통치자를 보좌하는 사람은 병력으로 세상을 강압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은 곧 응보가 돌아오는 법이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가시덤불만이 자라고 큰 전쟁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드는 것이다.” 85)

위의 말들은 노자 사상의 근본인 무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자의 무위란 인간의 작위를 거짓된 것이라 하여 부정하는 사상인데, 그러한 작위가 거짓된 것이라고 부정되는 이유는 그것에 의하여 인간의 본래적인 생활태도가 왜곡되고 손상되기 때문이다. 무위의 사상은 인간의 현실을 허위가 많은 것, 또 사회의 현실을 사악이 충만한 것으로 보는 곳에 성립하는 사상으로, 그 근거를 흐르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부정의 정신이다.

또 노자는 말하기를, “내가 무위이면 백성은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맑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무사의 태도를 견지하면 백성은 저절로 넉넉해지고, 내가 무욕이면 백성은 저절로 순박하게 된다(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제

83) 같은 책, <第75章>,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

84) 같은 책, <第57章>,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85) 같은 책, <第30章>, “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強天下 其事好還 師之所處 荊棘生焉 大軍之後 必有凶年.”

57장>)고 하였다. 이 말은 백성들을 위한 궁극적인 행복의 실현은 오직 무위 자연의 도에 의거한 청정무욕의 정치이며, 인위적인 작위를 부리지 않는 본래 무사의 지배를 뜻한다 하겠다. 나아가 노자는 인위적으로 천하를 차지하려는 것의 불가능함을 논하고, 무력으로 천하에 강대해지려는 것을 부정하였다. 즉 노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에 의한 천하 제패를 도에 어긋난다고 부정하여, 그 당시 위정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부국강병의 군국주의는 백성들의 생활을 짓밟는 권력의 횡포라며 준엄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전쟁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무위 자연의 진리에 어긋나는 권력자들의 행위이며, 또한 그것에 의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식량을 확보하는 농촌이 파괴되고 황폐해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노자에게 있어서 전쟁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위적인 억지를 강행하는 최대의 반자연이었던 것이다.

또 노자는 당대의 혼란하고 타락한 사회가 그 본래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실천 규범들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자의 다음 말을 보자.

“성(聖)을 끊고 지(智)를 버리라. 그러면 백성의 이익은 백 배가 될 것이다.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리라. 그러면 백성은 다시 효성스럽고 자애롭게 될 것이다.” 86)

위의 글은 노자의 “학(學)을 끊어버리면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絕學無憂: <제20장>)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며, 무위의 실천을 통해서만 인간 사회의 혼란과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악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 말은 북송(北宋) 소동파(蘇東坡)의 “인생으로서 글자를 아는 것이 우환의 시초” 라고 한 말과 같이, 학을 끊으면 문화와 멀어지게 되고 문화와 멀어지면 한편으로는 촌스럽고 어리석게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천지의 무위 자연으로 돌아간 가장 진실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작위를 행하면 오히려 할 일이 나날이 증가한다. 그러나 도를 행하면 할 일이 나날이 줄어 무위의 상태에 이르고, 무위의 상

86) 같은 책, <第19章>, “絕聖棄智 民利百倍 絕仁棄義 民復孝慈.”

태에 이르면 세계는 자발적으로 완성의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유가의 ‘학(學)’을 부정하고 무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상이라 하겠다.

(3) 복귀를 통한 구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자의 도·사상은 현재의 세계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영원 불변한 무(無)로부터 현현된 것이며, 현상적인 삶과 죽음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상존(常存)하는 영원 무궁한 하나의 근원적 생명이다. 노자의 다음 말을 보자.

“비움(虛) 이루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靜) 지키기를 두터이 하라. 그러면 만물이 함께 일어나 생동한다. 나는 그것이 도에 복귀함을 본다. 만물은 활기에 차 무성하다가 각기 그 근원으로 복귀한다. 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것을 명(命)에 돌아간다고 한다. 명에 돌아가는 것을 영원 불변한 것(常)이라 하고, 상을 아는 것을 밝음(明)이라고 한다. 상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어 화를 자초한다. 상을 알면 만물을 포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면 공편(公遍)하게 된다. 공편하게 되면 왕에 이르고, 왕에 이르면 천에 이른다. 천에 이르면 곧 도(道)에 이른다. 도에 이르는 것은 곧 영원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⁸⁷⁾

위의 말은 무위 자연의 도를 체득한 성인의 평안한 처세를 말한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의 근원인 무위 자연의 도는 텅 빈 것이며 고요한 것이므로, 도의 근원적인 허(虛)와 정(靜)으로 되돌아가 자기도 또한 허의 극치에 달하고, 독실하게 정을 지키게 되면 자기의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그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갈 때 자기도 또한 도의 영원불멸성을 자기의 것으로 하여 편안하게 이 세상을 끝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자는 마음을 텅 비우고 지극히 고요한 경지에 들어감으로써, 영원 무궁하고 미분화된 하나의 근원적 생명이 분화된 다수의 현상적 생명들을 낳고 화육시키고 다시 하나의 근원으로 되돌리고 있는 본원적 세계를 말한다.

87) 같은 책, <第16章>, “致虛極 守靜篤 萬物竝作 吾以觀復 夫物芸芸 各歸其根 歸根曰靜 是謂復命 復命曰常 知常曰明 不知常 妄作凶 知常容 容乃公 公乃天 天乃道 道乃久 沒身不殆.”

노자는 또,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도의 작용이 무의식적 무의도적으로 유약하게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이루어 낸다고 역설하였다. 노자의 도사상은 바로 무위(無爲) 및 덕(德)사상이며, 인간의 지나친 유위(有爲)를 부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덕이란 도의 자세를 자기의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터득하고 있다는 뜻이며, 무위란 자기의 악덕을 버리고 작위를 버린 자세가 도의 본래적인 무작위(無作爲)와 같다는 것을 말한다.

노자는 인간 사회의 악과 타락은 오로지 인간의 의도적 작위에서 비롯한다고 보았으며, 또 의도적 인위적 행동은 도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을 방해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자는 궁극적인 도의 세계와 인위에 의해 타락한 세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물을 끊임없이 근원으로 복귀시키는 도의 자발적 원리에 순응하여 인간과 사회도 원초적 근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인간과 세계가 근원인 도로 복귀함으로써 인간과 세계가 본래적으로 지닌 잠재적 가능성이 자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복귀의 정향(orientation)은 바로 노자에 나타난 신앙과 구원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⁸⁸⁾

인간과 사회가 근원으로 복귀하는 구원 과정이 가능한 근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와 만물 즉 자연이 도를 따라 영원히 운동하고 변화하며, 만물은 끊임없이 도에서 나와 또 도에로 복귀하고자 하는 도의 자발적 원리가 우주와 만물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도의 이러한 본질을 깊이 믿고 도와 일치하고 화합하기 위해 인간의 신앙적 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자의 다음 말을 보자.

“도 가운데 정(精: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있고, 그 정은 지극히 참되며, 그 가운데 믿음(信)이 있다.”⁸⁹⁾

“도를 높이는 일, 덕을 귀하게 여기는 일, 그것은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常自然).”⁹⁰⁾

88) 종교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pp. 131~171

89) 같은 책, <第21章>, “其中有精 其精甚眞 其中有信.”

위의 글은 도가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지, 누구의 지시나 누구의 명령에 의한 인위적 작위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노자에 있어서 도에 의한 복귀의 구원 과정과 이에 참여하는 인간의 교응(交應) 행위에는 그 어떤 의도성이나 작위적 개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자는 또, 만물은 끊임없이 무명(無名) 무형(無形)의 무로 복귀하며, 무는 끊임없이 보이는 차별적 사물들을 낳으며, 자신으로부터 현현된 세계를 남김없이 포괄하고 관통하며, 현상세계 안에 내재하는 무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생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자의 다음 말을 보자.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무는) 끊임없이 실처럼 이어지나 이름 붙일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 무의 상태로 되돌아간다.⁹¹⁾”

도는 우주 본체와 우주 내의 모든 사물의 형성원리의 혼합체로서, 만물의 종(萬物之宗), 즉 만물의 근본이 된다. 그러나 도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도는 텅 빈 그릇처럼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거기에는 우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도의 작용을 노자는 자발성(자연) 혹은 무위라고 부른다. 따라서 형체가 있을 수 없으며, 형체가 없으니 또한 이름조차 지을 수 없으며, 그러기 때문에 영원불변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는 무색(無色)과 무성(無聲)과 무형(無形)이 혼연일체를 이룬 근원적 존재로서, 자발성과 무위에 의해 세계는 만들어지고 무의식적·무의도적인 율동에 의해 세계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노자의 다음 말을 보자.

“도는 만물을 낳고 도의 구체적인 힘(德)이 만물을 기른다. 도는 만물을 성장시키고 화육하며, 형체를 부여해 주고 성숙시키며, 양육시키고 감싸서 보호해 준다. 도는 만물을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성장하게 하면서도 주재하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신비로운 덕(德)이라고 한다.⁹²⁾”

90) 같은 책, <第51章>,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 而常自然.”

91) 같은 책, <第14章>, “繩繩不可名 復歸於無物.”

92) 같은 책, <第51章>, “故道生之 德畜之 長之育之 亭之毒之 養之覆之 生而不育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

위의 글은 무위 자연의 도와 일체 만물을 생성 화육하는 위대한 조화작용(현덕)을 강조한다. 즉 노자는 도가 우주 만물을 낳고 기르고 보호해서 완성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도의 이러한 자발적 능력은 완전한 것이며, 어떤 의도나 어떤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무의식, 무의도적으로 완전히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자에서 복귀의 주제는 ‘복수기모(復守其母)’ ‘포일(抱一)’ ‘포박(抱樸)’ ‘복귀어박(復歸於樸)’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⁹³⁾ 노자의 도는 만물을 낳는 본체 즉 근본으로, 변함없이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총괄하며,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복귀를 통해 궁극적 경지인 도와의 합일을 추구했다. 즉 도는 만물을 생성화육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운동이란 바로 근원이 되는 도에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 도의 작용은 일체를 성취하여 한없이 광대하지만, 그 힘은 유약하여 우격다짐의 강인성이나 분별없는 행동을 전혀 갖지 않는다. 또 도는 우주의 본래적 상태로서 감각적으로 분별하기 이전의 무지(無知)·무욕(無欲)·무명(無名)의 상태이며, 인위가 아직 개입되지 않은 원초적이며 자발성을 가진 완전한 무위의 상태였다. 이 상태는 아무런 인위적 작위가 가해짐이 없이 우주 만물이 자발적으로 조화롭게 생성화육되는 이상적 상태 즉 구원의 상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2) 도와 인간의 구원

(1) 도에 대한 신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자는 인위적 작위에 의해 타락하고 부패한 기존 사회를 무지하고 무욕하고 무명한 원초적 본래적 도와 일치하는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노자는 궁극적 실재이자 이상적 원리로서의 도가 언제나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자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나아가 노자는 도와 인간, 그리고 우주가 서로 유기체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도는 자발적으로 인간세계에 작용해 들어오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⁹⁴⁾ 노자의 “도는 텅 비었지만 이를 활용해도 항상 차지 않으며,

93) 종교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p. 155

94) 같은 책, p. 156

깊고 깊어서 만물의 근본과 같다. 도는 그 예리한 것을 꺾고 그 엉클어진 것을 풀며 그 빛을 부드럽게 하면서 세속적인 인간세계와 혼연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95)라는 말은 바로 이를 말한다 하겠다.

노자의 다음 말을 보자.

“천(天)의 도(道)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떨어내어 부족한 사람을 보완해 준다.” 96)

“천도(天道)에는 친소(親疎)가 없다. 항시 선인(善人)과 함께 한다.” 97)

노자는 도 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였다. 도는 일체 만물을 생성화육한다. 해서 도를 만물을 양육하는 어머니(食於母: 제20장)라고도 하고, 천하의 어머니(천하모: 제25·52장)라고도 한다. 즉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 대하여 평등한 사랑을 갖는 것처럼, 도도 또한 만물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의 도 앞에서의 평등은 무시된다. 거기서는 빈부 귀천이 있고, 지위 고하가 있고, 피부색과 나이의 차이가 있고, 문명(文明) 정도 등의 차별이 있고, 강자와 약자가 대립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은 부를 소유하여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노자는 이러한 인간사회의 현실을 천도에 어긋난 부자연이라고 보았다. 그렇다고 그가 현실 사회의 귀천 그 자체, 빈부 그 자체의 존재까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보충해 주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부족한 사람으로부터 남김없이 빼앗아가는 부자나 권력자의 사치와 정도가 지나친 것을 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엄하게 규탄한 것이다. 더욱이 노자는 인위적인 것이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하늘의 도에 그대로 순종하는 무위 자연의 처세에는 미치지 못하며,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에 맡겨 눈앞의 공리(功利)에 현혹되지 않는 처세를 해야 함을 밝혔다.

95) 같은 책, <第4章>, “道沖而用之 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挫其銳 解其粉 和其光 同其塵”

96) 같은 책, <第77章>,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97) 같은 책, <第79章>, “天道無親 常與善人.”

따라서 노자의 “도는 선인의 보배이며 불선인(不善人)이 보호되는 곳이다. …사람이 선하지 못하더라도 도가 어찌 그 사람을 저버림이 있겠는가!… 옛 사람들이 이 도를 귀중히 여긴 까닭이 무엇인가. 「구하는 자는 얻고 죄가 있는 자는 면할 수 있다」 고 하지 않던가!”⁹⁸⁾ “천(天)의 도는 이롭게 할 뿐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남을 위할 뿐 싸우지 않는다”⁹⁹⁾ “대저 자비(慈悲)는 이것으로써 싸우면 곧 이기고, 이것으로써 지키면 곧 견고하다. 하늘(天)이 장차 이를(자비로써 싸우려는 사람)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비로써 이를 지켜 준다”¹⁰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는 만물을 다 포용하여 그 근원에 있는 궁극적인 존재이며, 만물의 선도 불선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서 어떠한 것도 버리지 않으며, 만민의 행복을 실현코자 하는 최고의 가치를 줌으로 정치의 원리로서 최상의 것이다. 또 도는 선과 불선을 포용하여 하나이며, 도 앞에서는 선인도 없고 불선인도 없으므로 불선도 또한 선이 되고, 불의도 또한 의가 된다. 근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악으로 생각되는 것도 선으로 보고, 불선인으로 생각되는 것도 선인으로서 용서를 받는다. 또 하늘의 도는 만물에게 혜택을 줄 뿐 결코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모든 수모를 참으니 변명하거나 싸우지 않으며, 자비(慈悲)로써 싸우면 곧 이기고 자비로써 지키면 곧 견고해진다. 그러므로 하늘도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는 자비로 그를 보호해 준다고 하였다.

노자의 도사상에 나타나는 구원관은 기독교적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육신의 부활을 비롯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거나,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지혜와 마음의 해탈을 이룬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불교적 발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노자의 도는 스스로의 운동을 통해서 가고(逝), 가서 극에 이르고(遠), 극에 이르러 되돌아가며(反), 그것이 순환으로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사상이다. 즉 노자가 말하는 도는 선악을 초월해 있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무한히 자비로운 도로 되돌아가려 할 뿐이다. 해서 노자는 이

98) 같은 책, <第62章>, “善人之寶 不善人之所保… 人之不善 何棄之有… 古之所以貴此道者何 不曰求以得 有罪以免耶.”

99) 같은 책, <第81章>, “天之道 利而不害 聖人之道 爲而不爭.”

100) 같은 책, <第67章>, “天將救之 以慈衛之.”

를 위해 항상 자신을 갈고 닦는 수양을 계속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인간은 자연 무위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노자는 도를 통해 수양을 행하면 날마다 욕망이 줄어들며, 줄어들고 또 줄어들면 억지로 함이 없는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자연 편안함을 얻게 되며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결국 노자가 말하는 인간 구원의 도사상은 노자의 “이 도로 자신을 수양하면 그 덕이 참되고, 이 도로 가정을 보살피면 그 덕이 여유가 있고, 이 도로 고을을 보살피면 그 덕이 장구(長久)하고, 이 도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이 풍성하고, 이 도로 천하를 다스리면 그 덕이 두루 미친다” 라고 한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겠다. 따라서 수양에 의해 도에 통하면 마음이 하늘처럼 광대하게 되며, 바로 무위의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무위의 도만 체득하면 영원불멸성을 얻게 되며, 무위의 도 속에서 일생동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드디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2. 불교의 수도 양상

불타는 “비구여, 병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다. 1, 2년 심지어 백여 년이나 육신의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비구여, 마음에 번뇌가 없는 사람(阿羅漢: Arahant) 이외에는 한시라도 마음의 병 없이 지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고 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괴로움이나 번뇌를 갖고 태어났으며, 또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교에서의 수도는 삼도(三道)의 둘째 단계로서 감정이나 의지로 부터 일어나는 온갖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려고 되풀이해서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그 도의 완성은 바로 니르바나(nirvāna)의 경지에 도달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니르바나는 인간 고통의 완전하고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타는 열반을 생명의 불꽃을 끄는 것, 은신처, 차가운 동굴, 범람 가운데에 있는 섬, 자유, 법열(法悅)이 있는 곳, 안전(安全), 최고의 것, 초월(超越) 등으로 묘사하며, 열반(涅槃)을 뜻한다.

도의 완성을 위한 보살의 수도 즉 수행을 일반적으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上求菩提 下化衆生)는 말로 표현한다.

이 말은 먼저 깨달은 다음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하는 그 자체가 중생 교화이며, 중생 교화가 곧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보살은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지닌 명상을 비롯 사홍서원(四弘誓願)·삼취정계(三聚淨戒)·사섭법(四攝法)·육바라밀(六波羅蜜)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1) 명상(冥想)의 목표

명상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건강하게 하여 평형을 이룬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또한 정관(靜觀)이라고도 한다. 명상이나 수행이라는 말은 원래 브하와나(bhâvana) 말로서 수행(修行)이나 개발(開發), 즉 정신수행이라는 뜻에서 비롯한다.

이 수행의 목표는 사람으로 하여금 탐욕(貪慾)을 완전히 없애고, 성냄을 아주 없애고, 어리석음(痴暗)을 뿌리까지 없애는 것 등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지혜와 마음의 해탈을 이룬 열반에 이루기 위함에 있다. 즉 탐욕·증오·악의·게으름·근심·불안·회의와 같은 불결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의 집중·직관·총명·의지·정력·분석력·확신·기쁨·부동(不動)과 같은 것을 닦아서 마침내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궁극적인 진리인 열반을 깨닫는 가장 높은 지혜를 얻는 데 있는 것이다.¹⁰¹⁾

명상의 수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무변처’ (空無邊處)나 ‘비상비비상처’ (非想非非想處)와 같은 불가사의한 상태에 오르도록 삼매(三昧)에 들거나 심일경성(心一境性)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무변처란 공간이 끝없이 펼쳐지는 단계를 말하고, 비상비비상처란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공간이 끝없이 펼쳐지는 단계를 말하고, 삼매란 마음을 한 곳에 모은 상태라고 말한다. 이런 모든 불가사의한 경지들은 불타에 의하면 마음에서 창조되고 마음에서 산출되며 마음에서 연기(緣起)되어진다. 그러나 불타는 그 경지가 완전한 해탈도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통찰력도 주

101) 李載昌·覺丁·윌포라 라후라 外,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pp. 79~81

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다른 하나는 사물의 본성에 대한 통찰, 즉 비바사나(毘鉢舍那)를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바사나란 관법(觀法)을 말한다. 불타는 이 비바사나란 명상법을 개발,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해탈도 하고 궁극적 진리인 열반도 깨달았다고 한다. 이 명상법은 유념, 알아차림, 세밀한 주의, 관찰에 바탕을 둔 분석적 방법으로서 이것을 대개 불교의 명상이라고 한다.

2) 명상의 방법

불타는 명상(정신수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염주경(念住經)이라고 했다. 이것은 경을 암송한다는 의미이다. 경전을 암송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절에서는 물론 불교 신도의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둘러앉아 아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진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순화시켜 주기 위해서도 경전을 암송한다.¹⁰²⁾

불교의 명상법은 대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의 슬픔과 기쁨, 말과 생각, 도덕적·지적인 일과 모두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명상 과정에는 육체에 관한 것, 감정과 감각에 관한 것, 정신에 관한 것, 여러 도덕적·지적인 문제에 관한 것 등이 있다.

먼저 신체에 관한 것을 보자. 신체에 관한 것에는 수식관(數息觀·安般念)이 있다. 이 수식관이란 숨쉬기를 헤아릴 수 있으려면 발을 포개고 앉아서 몸을 똑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깥 가다듬는 방법을 말한다. 즉 명상하는 사람은 몸을 똑바로 하고 앉되 몸이 굳어서는 안되며, 손을 편안히 자신의 무릎 위에 놓고, 눈을 감거나 코를 주시하거나 편안한 대로 앉아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온 정신을 숨쉬기에만 집중하여 숨의 움직임, 변화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모든 것(주위나 주변 등)을 잊어야 하며, 눈을 뜨지도 말며 아무 것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면 자연 열반을 체득하게 되며,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며, 모든 것을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건강을 가져오게 되고,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또 일상 업무에서의 능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

102) 같은 책, pp. 81

라서 명상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평정을 느끼게 하여 만족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정신을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자신의 현재의 순간과 현재의 행동에 대해 철저히 유의하고 마음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대개 현재의 이 순간의 행위 속에서 살기보다 과거나 미래에서 사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쓸 데 없는 생각, 망상이나 걱정거리, 또는 과거에의 추억이나 미래에 대한 열망과 사색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현재의 행위 속에 사는 것도, 현재의 행위를 향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행복한 생각보다는 불행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현재의 순간과 현재의 일에 대해 대단히 불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의 일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어 결국 불행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도피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가 동굴에서 혼자 살든 마을에서 더불어 살든 자신의 삶과 대면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불타는 사람은 누구나 시방(十方: 현재의 순간)에 살고 현재의 행동 속에 산다고 말했다. 즉 참된 삶은 현재의 순간 속에 사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건 우리의 삶이 사라져버린 과거에의 추억도 아니며,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꿈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에 관해 언제나 마음을 집중하고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의 순간에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음, 감정에 관한 것을 보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다. 어떤 때는 행복보다는 불행한 감정을 더욱 많이 갖는다. 행복한 생각을 가질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 불행한 느낌을 가질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매우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다. 즉 이 불행함이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그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럴 때 대개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도저

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응시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관찰하고 면밀히 검토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의 본질, 그것의 생성·소멸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마음은 그 감정에 대해 냉정을 갖게 될 것이고 고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주 화가 나서 분노·악의·증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자. 그럴 때 주의할 것은 화가 남의 본질과 생성, 소멸 과정을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화가 난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보면 대체로 소멸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적, 정신적, 지적인 것을 보자. 여기에는 우리가 하는 공부·독서·논의·대화·토론 등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을 명상함에 있어서는 탐욕과 악의·증오·분노, 지둔·무기력과 불안·근심, 그리고 회의와 의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것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람은 대체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깨달음에는 일곱 가지 요인이 있다. 즉 염각분(念覺分: 모든 육체적 정신적 행동과 움직임을 세밀히 관찰하고 아는 것), 택분각분(擇法覺分: 교리의 여러 문제에 관한 연구와 조사), 정진각분(精進覺分: 끝까지 결의를 다지며 밀고 나아가는 것), 희각분(喜覺分: 마음의 염세적이고 우울한 상태와 정반대의 상태), 경안각분(輕安覺分: 육체와 정신이 휴식을 취하는 상태로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없는 것), 정각분(定覺分: 정신 집중이 되어 삼매에 든 상태), 사각분(捨覺分: 인생의 파란곡절에서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근심없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의 요인에 관해 명상할 수도 있다고 경전은 가르친다. 그러나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진실한 염원과 의지, 그리고 취향 등을 어떻게 갖는냐 하는 것이다.¹⁰³⁾

이외에도 여러 명상의 주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존재란 무엇인가’ 또는 ‘나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된 오온에 대하여 명상하거나,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사성제에 관해 명상할 수도 있다. 또 예로부터 내려온 40가지의 주제 가운데 네 가지 범주(梵住)인 자(慈: 차별을 두지 않고 중

103) 같은 책, pp. 82~87

생을 사랑하는 보편적이며 무한한 사랑), 비(悲: 근심과 번뇌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 희(喜: 다른 사람의 성공, 복지, 행복에 공명하는 기쁨), 사(捨: 인생의 모든 파란곡절에서의 침착과 평정) 등에 관해서도 명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깨달음의 실천

불교의 교리는 아주 숭고하고 장엄한 세계를 체계화한 이론이다. 불타의 가르침은 절에 사는 승려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속인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불교도의 생활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도 가운데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이 있다. 이 도를 수행하는 과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숭고하고 지순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가르침이라 하겠다.

경전에 의하면, 불타의 제자인 사리불은 “어떤 사람은 숲 속에서 살면서 고행 수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불결한 생각과 번뇌로 가득차게 될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을이나 도시에 살면서 고행 수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순수하고 번뇌로 물들지 않을 수도 있다” 고 말하면서, 마을이나 도시에서 번뇌로 오염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숲속에 살면서 고행수업을 하긴 하지만 불결한 생각과 번뇌로 가득찬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하다고 했다. 불교 경전에는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면서 불타의 가르침을 잘 실행 실천하여 열반을 깨달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음을 본다.

『경전』 <무아>의 장에, 밧차고차라고 하는 유행자가 어느 날 불타에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불타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평신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불타는 이 물음에 “하나, 둘이나 이백, 오백이 아니라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나의 가르침을 잘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는 구절이 나온다. 이 말은 소란과 혼란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동료들을 도와주고 도움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에 살면서 불타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실천하

는 것이 더욱 용기있고 훌륭한 일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만큼 강해지기 위한 도덕적·정신적·지적 훈련 준비로서, 마음과 품성을 닦기 위해 한 동안 은둔생활을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동료에 관심없이 자기만의 행복과 구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일생을 고독하게 보낸다면, 이것은 분명히 타인에 대한 사랑·연민·봉사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불타의 가르침은 자신의 정신적·지적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까지 기꺼이 일생을 바쳐 많은 사람의 선과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3. 기독교의 수도 양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탄생한다. 그것은 종교가 종말적 상황에서 절규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출현도 예외는 아니다. 예수가 출생할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배적 종교는 유대교이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공을 받아 온갖 고통과 학대를 겪는 가운데 그 민족의 정체성과 생명을 지탱해준 것은 다름 아닌 야훼 종교의 힘이었다. 따라서 유대교는 국내외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하고 야훼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역사를 전개시키는 모체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분열과 분파만 거듭한 유대교는 가혹한 탄압과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의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메시아(구세주)의 탄생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삶, 절망과 희망의 기로에서 방황하면서도 메시아가 오면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시대가 펼쳐져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기대 속에서 등장한 것이 예수였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수많은 교훈과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죽음과 부활 사상도 그 구체적 실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그 당시 삶의 중심을 잃고 헤메는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마태 6: 33)고 말함으

로서 인간 희망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명시해 주었다. 또한 그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녀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진 자나 못가진 자·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남자나 여자·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없이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인간이라는 자각을 갖게 하였다. 그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주고, 고독하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예수의 관심과 활동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로마의 권력에 직·간접으로 항거하였다. 따라서 그는 체제 유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적 존재가 되었으나 억눌린 민중들에게는 인기가 날로 높아져 메시아로 인식되었다. 이에 반해 유대교는 그 세력이 쇠퇴해갔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현상유지 정책의 일환으로 민중의 희망인 예수를 제거할 음모를 꾸며,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ot)로 하여금 사형을 선고하게 만들고 또 사형 집행의 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민중들은 그의 죽음과 함께 또 다시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지 3일만에 다시 부활을 하였다. 죽음과 함께 공포와 전율 가운데 도주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체험을 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되찾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 예배와 사랑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의에 빠진 민중과 예수를 모함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가 곧 희망의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계승하였다. 더욱이 바울의 극적인 개종은 기독교의 진리가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온 인류의 희망적 종교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 육신의 부활, 최후 심판, 최후에 공개될 하나님 나라는 세계와 역사 전체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때 창조물 전체는 그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게 되며, 이 목표야말로 모든 피조물의 생존과 역사의 의미가 된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식을 점차로 바꾸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현재의 직선적인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고, 앞으로 나타날

미래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증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심지어 언젠가 한 번은 역사의 종말이 닥치리라는 예견 대신, 틀림없이 역사는 발전하여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상태로 접어들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한다.¹⁰⁴⁾

이제 현대인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미래 문제를 전인류의 미래 문제와 더욱더 밀접하게 연결시켜 바라보게 되었고, 미래를 광범위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세계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유토피아적인 이상세계를 부정·불의·빈곤·전쟁·국수주의·인종차별 등을 극복할 앞날을 구체화하고 있는가 하면, 또 무기생산·대량학살·핵 위협·환경오염·다국적 기업의 횡포·경제 착취 등의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불안감을 갖는다. 이제 신앙은 단순히 예전처럼 “종말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 개인적 문제에 해답을 찾기보다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현실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성서는 ‘예고(豫告)’를 통해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예고는 다의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미래는 항상 미지의 것으로 남게 된다.(이사 7: 14) 또 ‘예언(豫言)’을 통해 현재를 비판하고 미래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며, 예언자가 “믿으라·들으라·보라·깨달으라·회개하라”(아모 5: 6; 호세 6: 3; 이사 7: 10~14; 예레 36: 3)고 외치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를 따로 보지 않고 현재를 기점으로 생성되어야 할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묵시(默示)’를 통해 우주 전체의 미래에 관하여 말하고, 곤경에 빠져 박해를 받으면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실현된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결국 승리한다는 신뢰감을 강화시켜 준다.¹⁰⁵⁾

또한, 인간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104) F. J. Nocke, “종말론-인류의 미래 문제”, 『현대신학동향』, p. 231

105) ‘묵시’는 ‘하나님의 啓示로 진리를 나타내어 준다’는 뜻으로, B. C. 200~A.D. 100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성행하던 난세문학의 일종인 默示文學에서 사용하던 양식을 말한다. 종교문화연구원 편,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창, 1993), pp. 441~442

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한다. 이 사회적 관계는 인간 상호간의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신앙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절대적 신비에 과감하게 자신을 위탁하는 결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한다. 성경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벌써 너희에게 그렇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도록 하겠다” (요 14: 1-3),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속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욕심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이상 10가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고전 6: 9-10)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으며, 죽어서 천당에도 갈 수 없음은 물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다(요 15: 5)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여 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천당에 가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에 수도 즉 기도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라 하겠다.

기독교적 수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자.

첫째, 내적 훈련으로 명상과 기도, 금식과 학습의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훈련의 목적은 인간의 이기주의와 공포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움을 갖는 데 있다. 인간의 영혼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일을 침울한 고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영적 삶의 훈련은 노래와 춤과 외침으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¹⁰⁶⁾ 그러나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

해서는 명확한 해답은 없다. 다만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할 뿐이다. 이는 시편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니” (시 42: 1-2)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외적 훈련으로 단순성과 홀로 있기, 복종과 봉사의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순성의 훈련은 외적 생활 양식을 가져다주는 내적 실재이며, 우리의 외적 생활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는 내적 실재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또한 단순성의 내적 실재 없이 단순성의 외적 생활 양식을 소유하려는 시도는 율법주의에 이르게 할뿐이다. 성경의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置心)치 말지어다” (시 62: 10),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잠 11: 28)라고 한 말 등은 바로 이를 말한다 하겠다.

셋째, 단체 훈련으로 고백과 예배, 인도와 찬양의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수도의 방법으로는 개인적인 훈련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단체가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훈련을 쌓아가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고백을 통하여 용서받은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죄의 성가신 습관에서 자유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役事)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자신이 남과 더불어 상호간의 고백을 주고 받는다 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안수’ 기도가 있다. 안수는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의 요소로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능력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그 기도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내적 상처의 치유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성경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 19)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말한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큰 기쁨을 갖고 오셨기 때문이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106) Richard J.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San Francisco: Harper & Row, 1986): 권달천 역, *영적 훈련과 성장*(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pp. 14~15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 10) 그리스도는 그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 11)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였다.(눅 8: 10) 우리는 기쁨이 없이는 무슨 일이든 오래 지속할 수 없으며,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영적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은 오직 순종이다. 안에서 기뻐하는 길은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여자가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을 뵈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눅 11: 27)이 말을 들은 예수가 대답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눅 11: 28) 이 말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이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V. 대순진리에서의 수도와 도통진경

1. 수도의 목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순사상에서는 수도를 이렇게 정의한다. 즉 수도란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도란 늘 마음과 몸을 고요히 하며 정심(正心)에 이르도록 하여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몸에 구현시키는 일이다.

대순사상의 이상과 목적은 증산의 공사(公事)와 말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주(道主·趙鼎山)가 교리체계로 발표한 종지(宗旨)¹⁰⁷⁾인 음양합덕 신인 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등을 비롯 신조(信條)와 목적, 훈회(訓誨)와 수칙(守

107) 道主가 을축년에 無極道를 창도·증산을 구천 응천 퇴성 보화 천존 상제로 봉안·종지 및 신조와 목적을 정함.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운: 2-32.”,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201

則) 등은 물론 공부법(工夫法), 주문법(呪文法) 등 수도·공부·법방(法方)의 체계화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경』의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道)이 있다(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¹⁰⁸⁾고 한 말이나,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神人)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기다려 밝아지고, 사람도 신을 기다려 밝아진다.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¹⁰⁹⁾고 한 말이나,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¹¹⁰⁾고 한 말이나,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리라”고 한 말 등이나, 대순지침의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경위이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말들은 인간이 후천 선경을 이를 변화의 길(道)을 찾아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러한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대순사상은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음양합덕(陰陽合德)이 우주가 생겨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성 발전 과정을 거쳐 진멸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이 음양의 부조화와 불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밝힘은 물론 후천선경은 이 음양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극복한 음양합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진리이며, 해원상생(解冤相生)은 기독교의 추상적 원죄나 불교의 연기연생론과 달리 개인, 사회 구성원, 인류 전체가 각자의 내면에 도사린 원통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 은둔자적인 자기

108)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18

109)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운: 2-42” 앞의 책, pp. 206~207

11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공사: 1-3” 「전경」, p. 98

성찰의 소극적 입장이나 맹목적 자기 희생의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도 살고 자기 자신도 더불어 살게 되는 상생의 진리이며,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과 인간이 산술적으로나 질적으로 동등함을 전제로 하늘과 사람, 인간과 자연의 상보 조화(相補調和), 보이지 않는 것(陰)과 보이는 것(陽), 통일(陽)과 분화(陰), 전체(陽)와 개체(陰), 인(仁·陽)과 의(義·陰)의 상보 조화 등 조화와 통합을 의미하는 구원의 진리이며,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그리고 해원상생 등 도통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수행 단계를 거쳐 도를 완성하면 마침내 도통진경을 이루어 후천의 선경을 세워간다는 진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수도의 필요성

대순사상은 이상적인 인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이다. 증산은 삼계(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의 생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였다. 천지공사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관념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한계 상황에서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며,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이다. 증산이 제시한 우주관은 우주를 포괄함과 동시에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종교적 사유이다. 즉 증산의 우주관은 우주보다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유이고, 이상적 사회 건설(후천선경)을 위한 관념적 틀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삼계 대권(三界大權)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어라” 111)

증산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고 후천의 선경을 열겠다고 하였다. 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의지와 함께, 이를 실현하여 선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111) 같은 책, “권지: 1-21” p. 271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相剋)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 112)

“상제께서 이 세상에 탄강하여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다” 113)

증산은 삼계가 개벽되지 못하고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일어난 이유와 증산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밝힘과 동시에 선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교하였다. 즉 증산은 자신의 조화(造化)에 의해 하늘과 땅을 직접 고쳐줌은 물론 인간을 고쳐주기 위해서 신명(神明)을 사람의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겠다고 하였다.

신명을 사람의 가슴속에 드나들게 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신명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단계로,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바르게 닦아서 신명과 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것은 증산이 벽을 향하여 누우시더니 갑자기 종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온 누리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모두 구출하기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 114)하면서 크게 슬퍼하였다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의 인간 구원은 도통진경의 경지에 도달함이다. 일반적으로 도통진경은 고통의 완전하고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토대는 바로 수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수도는 면이수지(勉而修之)하는 자성적 노력에 의한 깨달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증산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이 역이로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112) 같은 책, “예시: 8” pp. 312~313

113) 같은 책, “예시: 7” p. 312

114) 같은 책, “행록: 5-24” pp. 89~90

아니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 115)

“망하려는 세상을 아낌없이 버리고 새로운 배포를 차리라. 만일 애석히 여겨 붙들고 놓지 않으면 따라서 몸마저 망하게 되리니 잘 깨달아라.” 116)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 117)

증산은 자신의 말을 믿고 마음을 바로 잡아 수행을 계속하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한이 응어리가 되어 맺히고 쌓여 불행과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순사상의 음양합덕과 해원상생 그리고 신인조화를 바탕으로 한 수도를 통해 집착이 없는 깨달음으로 살아가면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항상 마음을 바로 잡고 성심껏 진실되게 살아가는 수행을 계속하면 도통진경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3. 수도의 실천 과정

1) 바른 마음의 실천

마음이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 그건 마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며, 또 어디에 정치(定置)하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¹¹⁸⁾ 『명심보감』(明心寶鑑) <성심편>(省心篇)의 “...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은 알 수 없느니라”(人死不知心), “...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지척 사이에 있건만, 이 지척 사이에 있는 마음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惟有人心咫尺間咫尺心不可料)고 한 말이나, 우리 속담의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니라”고 한 말 등이 이를 말한다 하겠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마음이 없으면 괴로워할 일

115) 같은 책, “교법: 2-1” p. 234

116) 같은 책, “교법: 1-8” p. 222

117) 같은 책, “교법: 2-37” p. 241

118) ‘마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무목, “대순사상에서의 안심과 정치문화의 상관성 고찰,” 『대순사상논총』-제7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9) 참조.

도 없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주위 환경과 관계하여 심신일체(心身一體)로서의 구체적, 현실적 정신생활을 구성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은 곧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또 마음에는 양심(良心)과 사심(邪心)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대순사상에서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을 말하는 것이고,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집약점이며 인간의 종교적 뿌리를 이루고 있다. 마음 속으로부터 가진 모든 생각, 정서, 욕망 등이 발현하며 마음 속에서 인간은 신(神)과 심오한 관계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현무경』(玄武經)에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 때문에 동서남북에 몸이 마음에 의지한다”(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¹¹⁹⁾고 한 말이나, “심령신대(心靈神臺)”¹²⁰⁾라고 한 말 등은 인간의 마음이 천지의 주인이며 곧 신이라는 의미라 하겠다.¹²¹⁾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천지의 주인이며 신적(神的)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심과 사심으로 갈라진다. 양심에 따라 생각하면 선을 창출시키나, 사심에 따라 생각하면 악을 창출시킨다. 여기에 마음의 문제가 개인에게는 물론 집단 사이에 대두되며,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종교사상이 다 그러하지만, 대순사상이 「전경」을 통해 ‘마음을 정직히 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라’ ·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훈회」를 통해 ‘마음을 속이지 말라’, 「수칙」을 통해 ‘무자기(無自欺)는 도인의 옥조(玉條)니, 양심을 속임과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과 비리괴려(非理乖戾)를 엄금함’ 이라고 한 말 등은,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하겠다. 따라서 수도의 실천적 방법의 하나가 바로 마음을 다스려 인간으로 하여금 「바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하늘의 썸과 땅의 썸과 사람의 썸이 모두 마음에 있느니라.

119) 앞의 책, “교운: 1-66” p. 183

120) 같은 책, “교운: 1-66” p. 187

121) 림영창·배용덕, 甌山神學概論(서울: 태광문화사, 1984), p. 106

마음이란 귀신의 비밀한 기틀(樞機)이요 대문(門戶)이요 길(道路)이다. 기틀을 열고 닫으며 대문을 들락날락하며 길을 오고 가는 것은 신(神)이다.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쓰게 되니 내 마음의 기틀과 대문과 길은 천지보다 더 크니라”¹²²⁾ “마음은 일신의 주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 사심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요.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¹²³⁾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됨이 없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¹²⁴⁾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음은 신체생활의 원인이며 본원(本源)으로서 그에 관한 학문도 마음의 본질과 속성을 연구하는 것”¹²⁵⁾이라고 한 말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은 바로 「인간의 본질은 마음」¹²⁶⁾이란 것을 강조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마음에는 양심과 사심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르고 착한 청정무구한 마음인데 반해 사심은 사적 욕망을 채우려는 망상과 허영으로 둘러싸인 마음을 뜻한다. 마음에는 이러한 두 개의 상반된 기운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양심이 커지면 사심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사심이 커지면 양심이 상대적으로 퇴보해 마음의 빛을 잃고 마는 것이다. 증산의 다음 말을 보자.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닳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¹²⁷⁾

이 말은 인간의 지나친 사사로운 이익 추구는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122)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也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앞의 책, “행록: 3-44.”, p. 48

123) 대순진리회 편, 포덕교화기본원리(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75), p. 14

124) 대순진리회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 15

125) 下中邦彦, 心理學事典(東京: 平凡社, 1962), pp. 359~360

126)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p. 5.; 림영창·배용덕, 앞의 책, p. 107.

127) 같은 책, “교법: 1-1” p. 221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애석해 하며 경고한 말이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마음을 닦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순사상에서 마음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정심과 일심, 그리고 무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를 ‘정심(正心)’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건과 사물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마음이 올바르게 서고 비뚤어져 있으면 모든 사건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증산은 “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 위천하자불고가사”(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爲天下者不顧家事)¹²⁸⁾라고 했다. 이 말은 바른 마음으로 심신을 닦아 집안과 나라를 다스리면 집안은 물론 세상이 편안해질 것이다. 무릇 사람은 천하를 위하여 사사로운 일은 멀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증산은 바른 마음과 함께 천하를 위하여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수도의 자세를 제시한 것이다. 증산은 또, 공사를 행할 때나 어느 곳에 자리를 정하고 머무를 때에는 반드시 종도들에게 정심을 명하고 혹 방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뜻이 마음을 거두라고 명하였던 것이다.¹²⁹⁾

둘째,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훈회」(訓誨)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천성인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마음이란 겉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언어나 행동은 모두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 마음에는 천성 그대로의 양심과 물욕에 의해 발동하는 사심이 있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이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그것이 사심으로 변해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함으로써 죄악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양심인 천성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직과 진실로써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남을 속

128) 같은 책, “공사: 3-39” p. 149

129) 같은 책, “교법: 3-8” p. 247

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른 마음에서 출발하며, 수심연성(修心鍊性)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증산의 다음 말은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 크게 경고하는 말이라 하겠다.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 130)

“죄 중에 노름의 죄가 크나니라. 다른 죄는 혼자 범하는 것이로되 노름 죄는 남까지 끌어 들이고 또 서로 속이지 않고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131)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대순사상에서는 ‘무자기’ (無自欺)로 표현하고 있다. 즉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면 자신의 안정은 물론 남의 안정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본다. 또한 자신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짐에 따라 그 이전의 자신은 가식과 허영, 자만과 자존 등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증산의 다음 말을 보자.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말고 조심하라.” 132)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自欺自棄)이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이다(心欺神棄)」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니 어느 곳에 용납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라.” 133)

위의 말은 『명심보감』 <천명편>의 “사람들 사이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의 들음은 우레와 같으며, 어두운 방 안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134)고 한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이 말은 하늘은 사람들이

13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 p. 39

131) 앞의 책, “교법: 1-58” pp. 231~232

132) 같은 책, “교법: 1-36” p. 227

133)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 p. 42

134) 『明心寶鑑』 <天命篇>, “玄帝垂訓曰 人間私語 天聽若雷 暗室欺心 神目如電.”

주고 받는 사사로운 말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으며,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도 남김없이 주시하고 있으니 언동에 조심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누군가 자기 양심을 속이는 언동을 했다 하더라도 신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심」의 구체적 실천은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며, 「무자기」 즉 나를 속이지 않음을 통해 신명과도 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이것을 일심(一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마음이 완전히 하나의 경지에 이르면 자기 마음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마음 먹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 마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곧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인간 본래의 본성(本性)을 찾은 상태를 말하며, 인간 본성의 회복은 바로 도통과 관련을 갖는 것이다. 증산의 다음 말을 보자.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 135)

“내가 비록 서측에 있을지라도 일심을 가지는 자에게 빠짐없이 찾으리라.” 136)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 주리라.” 137)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천명숙(全明淑)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君子神)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138)

위의 말은 일심(一心), 즉 한 마음을 가지면 생사를 초월해 모든 일을 이

135) 같은 책, “교법: 2-5” p. 234

136) 같은 책, “교법: 2-13” p. 236

137) 같은 책, “교법: 2-4” p. 234

138) 같은 책, “예시: 50” p. 326

루게 할 수 있으며, 일심에 바탕을 두면 만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군자신도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증산의 “진심견수 복선래”(眞心堅守 福先來)¹³⁹⁾라고 한 말도, 사람이 언제나 온전하게 진실한 마음을 지키면 복(福)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의미라 하겠다.

대순사상에서는 수도의 구체적 방법으로 수심연성(修心煉性)과 세기연질(洗氣煉質)을 든다.¹⁴⁰⁾ 수심(修心)은 마음을 바로 닦아 상생의 새 기운을 채운다는 뜻이며, 연성(煉性)은 인간 본연의 순수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성품을 단련하고 육성한다는 뜻이다. 세기(洗氣)는 기운을 바로 닦아 바람직한 해원적(解冤的) 삶의 양태를 규정한다는 뜻이며, 연질(煉質)은 인간 본래의 기질을 단련하고 육성해서 신명이나 초월적 기운과 합치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대순지침」에의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¹⁴¹⁾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기질을 바로 닦고 바로 잡아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수도를 열심히 하면 도통을 맞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의 수도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인륜 도덕을 밝혀 나가는 것이며, 증산의 말을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수도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경지인 도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2) 바른 언행의 실천

(1)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¹⁴²⁾

대순사상의 「훈회」에서, “말은 마음의 소리요 덕(德)은 도심(道心)의 자취라. 나의 선악(善惡)은 말에 의하여 남에게 표현되는 것이니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남 잘되는 여음(餘蔭)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악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양(餘殃)이 밀려 점점 큰 재앙이 되어

139) 같은 책, “교법: 2-3” p. 234

140)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66), p. 13

141)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 38

142) 楊茂木, “大巡思想에서의 安心과 政治文化의 相關性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7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9) 참조

내 몸에 이른다. 화(禍)와 복(福)은 언제나 언덕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언덕을 특별히 삼가라” 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말한다. 즉 사람은 언제나 말을 조리있게 해야 하며,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덕은 도심의 자취이기 때문이다. 또 남에게 선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악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화가 오기도 하고 복이 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라든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등의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일 게다.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널리 통용되는 것이 오늘의 인심이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대하려면 내 마음이 악에 물들게 되고, 그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말은 사람과 사람, 개인과 집단 사이의 행불행을 가져오는 물론 화합과 반목 등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남이 먼저 나에게 잘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이 먼저 남에게 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명심보감』 <언어편> 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함만 같지 못하느니라”,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게 하는 도끼와 같느니라”,¹⁴³⁾ <계선편>의 “나에게 선하게 하는 자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나 또한 선하게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아니 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¹⁴⁴⁾ 증산의 “상제께 김갑철이 항상 응석하여 고집을 부리나 상제께서 잘 달래어 웃으실 뿐이고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니 그는 더욱 심하여 고치지 않는도다. 형렬이 참지 못해 「저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고 꾸짖으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의 언행이 아직 덜 풀려 독기가 있으니라. 악장제거 무비초 호취간래 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

143) 『明心寶鑑』 <言語篇>, “言不中理 不如不言”, “口舌者 禍患之門 滅身之斧也”, “利人之言 煖如錦絮 傷人之語 利如荊棘 一言利人 重值千金 一語傷人 痛如刀割”

144) 같은 책, <繼善篇>, “莊子曰 於我善者 我亦善之 我亦善之 我既於人 無惡 人能於我 無惡哉.”

總是花)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하셔도다”¹⁴⁵⁾ 라고 한 말 등은 하나같이 말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치에 맞게 해야 하며, 말 한 마디 잘못하면 근심을 불러 오고 재앙이 몸에 미치며, 심지어는 몸을 망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고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고시조(古時調)의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라고 한 것도 바로 이를 말한다 하겠다.

증산의 다음 말을 보자.

“뱀도 인망을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에게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나니라.”¹⁴⁶⁾

“어떤 일을 묻는 자에게 그 사람이 듣고 실행하느냐에 상관하지 말고 바른 대로 일러 주라.”¹⁴⁷⁾

“남을 비방하는데 대해서 사람마다 제 노릇 제가 하는 것인데 제 몸을 생각지 못하고 어찌 남의 시비를 말하리오.”¹⁴⁸⁾

위의 말은 말이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남의 시비나 누행을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이며, 까닭없이 남을 칭찬하고 무조건 높이지도 말 것이며, 어디까지나 이치와 경위에 맞게 바른 대로 말할 것이며, 언덕을 특별히 삼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또한 증산의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이 역이로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 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¹⁴⁹⁾고 한 말이나, 『명심보감』 <성심편>의

145)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1-11” p. 223

146) 같은 책, “교법: 1-26” p. 226

147) 같은 책, “교법: 1-59” p. 232

148) 같은 책, “교법: 1-20” p. 225

149) 같은 책, “교법: 2-1” p. 234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허물어뜨린다” (半句非言 誤損平生之德) 라고 한 말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하겠다.

또 증산의 다음 말을 보자.

“나를 모르는 자가 항상 나를 헐뜯나니 내가 만일 같이 헐뜯어서 그것을 갚으면 나는 더욱 어리석고 용렬한 자가 되니라.” 150)

위의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하고 있다. 즉 나를 이유없이 비방하더라도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성(自省) 할 것과, 까닭없이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모르고 비방한 것이니 구태어 다투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은 『명심보감』 <계선편>의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것같이 하고, 악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같이 하라”,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내고, 악한 일은 즐거워하지 말라” 151)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세상에는 남의 좋은 얘기는 별로 하지 않으면서, 남의 안된 얘기나 잘못된 얘기는 신바람이 나서 떠들고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얘기는 조금도 입밖에 내지 말고 오직 남의 잘한 얘기만을 사람들에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언덕은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이다. 또 사람의 입은 사람을 해치게 하는 도끼와 같으며, 말은 혀를 자르는 칼과도 같다. 사람의 행복과 경사(慶事)는 대부분 선행을 쌓는 데서 생기고, 범용(凡庸)을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언덕이 진실한 데서 얻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입을 막고 자신의 혀를 깊이 감추어야 한다. 즉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솜과 같이 따뜻한 말은 하되, 남을 중상 모략하는 가시 돋힌 말은 극히 삼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이 어느 곳에 있어도 편안할 것이며, 또한 모든 일에 안정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언덕을 가짐에 있다. 언덕을

150) 같은 책, “교범: 1-27” p. 226

151) 『明心寶鑑』 <繼善篇>, “太公曰 見善如渴 聞惡如聲 又曰 善事須貪 惡事莫樂.”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마음을 바로 서게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무자기 또한 언덕을 향상시키고 언덕을 잘 갖도록 함에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에게 있어 마음이 바르면 바른 말이 나오고,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이치나 경위에 어긋난 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마음이 한없이 깊으면 사려깊은 말이 나온다. 그에 비해 마음이 얕으면 함부로 말하거나 경솔한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만 옳다고 느끼고 남의 생각은 무시하는 데서, 또 나의 주장만 뛰어나고 남의 주장은 치졸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자연 상대를 무시하는 생각과 상대를 깔보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언덕을 잃고 마는 것이다. 즉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실한 인간 본연의 심성으로 되돌아가 겸허하게 무자기에 가깝도록 접근해 가면, 자연 올바른 언덕이 나온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상태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를 잘 하면 덕을 가져오나 그것을 거스르면 서로 장벽을 쌓게 되고 서로 적대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명심보감』 <준례편>의 “문밖에 나갈 때에는 큰 손님을 대하는 것같이 하고, 방에 들 때에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해야 한다”, “만일 남이 나를 중히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김보다 지나가는 것은 없다”¹⁵²⁾고 한 말이나, 「대순진리회요람」 <수칙> 제2항의 “삼강오륜은 음양합덕, 만유조화 차례도덕(次第道德)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尊丈)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휼(愛恤)지도(指導)하고, 친우간에 신의(信義)로써 할 것”¹⁵³⁾ 이라고 말한 것 등은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평가한다. 비록 보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항상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접해야 한다.

152) 『明心寶鑑』 <遵禮篇>, “出門 如見大賓 入室 如有人.”, “若要人重我 無過我重人.”

153)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

대문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처럼 의복을 단정하게 입고 태도를 정중하게 지녀야 하고, 빈 방에 혼자 있을 때라도 마치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음과 태도를 올바르게 지녀야 하며, 증자(曾子)의 “너에게서 나온 것이 너에게로 돌아간다(出乎爾者 反乎者也)” 는 말처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해 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생각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 사이에 일정한 도리와 예절을 다함으로써 사람 사이에 화합과 질서가 생기고, 그로 인해 화기로운 기운이 생겨 서로 조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화합은 곧 천지 자연, 그리고 신명의 화합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증산은 김형렬에게 잘 기억해 두라고 이르시면서 시를 한편 외우셨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다. “처세함에 있어서 은유를 귀중히 하고 억셈과 강함은 화의 바탕이 되니, 말함에 있어서 언제나 더듬거리를 바라고, 일함에 있어서 의당히 어리석은 것처럼 하라”¹⁵⁴⁾는 것이다. 또 「대순지침」 <수도·공부>편에,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겸허한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하면 예절을 잃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예절을 저버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허영심과 자만심, 그리고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만사는 모두 마음 속에 있다 하겠으며,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깨끗이 하고 또 올바르게 가지면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이 편안해지고 나아가 사회와 나라가 화평해져서 드디어 도통을 이룬 후천 선경이 건설되는 것이다.

(2) 척을 짓지 말라¹⁵⁵⁾

대순사상의 「훈회」에서, “척은 나에게 대한 남의 원한이니, 곧 남으로 하

154) “處世柔爲貴 剛強是禍基 發言常欲訥 臨事當如癡.”, 같은 책, “행록: 3-49” p. 50

155) 척에 관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大巡思想에서의 安心과 政治文化的 相關性 考察,” 앞의 논총, 참조

여금 나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호의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인즉, 항상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溫恭) 양순(良順) 겸손 사양의 덕으로써 남을 대할 때에 척을 짓지 않도록 하라” 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말한다. 증산은 사람으로 하여금 남에게 척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척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며, 그것은 또한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호의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이다. 따라서 항상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 양순, 겸손, 사양의 덕으로 남에게 척을 지어서는 안되며 그래야만 복을 누림은 물론 도통하게 되어 자신의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명심보감』 <성심편>의 “남과 원수 맺는 것을 일러 재앙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하고, 선을 버리고 하지 않는 것을 일러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같다”, “영묘한 약도 원한의 병은 고치기 어렵고, 뜻밖에 얻은 재물도 운명이 궁한 사람은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일을 만들어 일이 생긴 것을 그대 원망하지 말고, 남을 해치고 나서 남이 나를 해치는 것을 화내지 말라. 천지 간 모든 일은 다 응보(應報)가 있나니, 멀면 자손에게 오고 가까우면 자기 몸에 오느니라”¹⁵⁶⁾고 한 말이나, 증산의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¹⁵⁷⁾라고 한 말 등은 남에게 억울한 일이나 못할 짓을 하여 원한을 사서는 안됨을 강조한 것이다. 즉 원한이 깊으면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답은 자기가 받게 마련이며, 좋은 일을 했으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했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또한 해원상생 사상을 생활화해야 함을 말한다 하겠다.

척을 짓는다는 것은 원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의 마음이 막히고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서로 마음이 막히고 통하지

156) 『明心寶鑑』 <省心篇>, “景行錄 云 結怨於人 謂之種禍 捨善不爲 謂之自賊”, “梓童帝君垂訓 曰 妙藥 難醫冤債病 橫財 不富命窮人 生事事生 莫君怨 害人人害 汝休嗔 天地自然皆有報 遠在兒孫近在身.”

157) 같은 책, “교법: 2-44” p. 242

않으면 서로 화합도 단결도 상부상조도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든 성사를 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증산의 천지공사는 신이나 인간의 일을 화합과 상생에 의해 모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 증산은 또 말한다. 이미 지어진 척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척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한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뜯어고쳐 인사를 저절로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천지공사는 성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증산의 다음 말을 보자.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 158)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 159)

증산은 고해에 빠진 중생을 건지기 위한 천지 공정의 전제 조건으로 사람은 모든 일에 조심할 것과 남에게 척을 짓지 말 것과 죄를 멀리할 것과 순결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만약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원한을 사게 되면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보복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척은 왜 생기는가? 척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있다 할 것이다. 좋은 말은 사람을 신성하게 만들고,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의 말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 주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중상한다. 왜 그럴까?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사고방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선량하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이로운 말을 해준다. 그러

158) 같은 책, “교법: 1-9” p. 222

159) 같은 책, “예시: 17” p. 315

나 마음이 비뚤어지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로운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 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객관적으로 반성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입만 벌리면 항상 불평불만과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만을 하게 마련이며,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척을 짓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악은 잘 행하나 선은 잘 행하지 못한다. 선을 행함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데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이고 행동이다. 이것은 대개 자신의 위치나 분수, 그리고 수준을 모르고 지나친 욕심과 자만심을 갖는 데서 비롯된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괴롭히게 되고, 그로 인해 원한을 매게 되고, 그로 인해 척을 만들게 된다. 즉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면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해치는가 하면 생각없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언덕을 잃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 모든 것이 남에게 척을 짓는 원인이 된다 하겠다.

증산의 다음 말을 보자.

“대장이 삼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감이 장쾌하고 영귀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물고 많은 살해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느니라.” 160)

“이웃 사람이 주는 맛 없는 음식을 먹고 혹 병이 생겼을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척이 되나니라.” 161)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척으로써 작용한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간에, 설사 잘못이 상대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건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해주지 못한 자신의 마음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옳은 것을 오히려 상대가 이해해주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오해 때문에 척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도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를 포용하고자 노력한다면 서로간에 오해에 의해 빚어질

160) 같은 책, “예시: 58” p. 330

161) 같은 책, “교법: 2-46” p. 242

수 있는 척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척은 결국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마음, 자기 위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 데서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기 때문이다.¹⁶²⁾

그러나 일단 척이 맺혀지면 그것은 자신에게는 물론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증산의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¹⁶³⁾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그마한 개인적인 원이 퍼져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포함하여 온 누리에 원을 가득차게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증산의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¹⁶⁴⁾는 말과 같이, 한 사람에게 맺힌 원한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나라와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일을 그르치게도 하는 것이다. 즉 척으로 인해 막힘이 있으면 서로 화합도 못하고 상생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척은 어떻게 하면 풀어도 풀 수 있는가? 척은 저지르는 측에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척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는 원한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척은 먼저 자신이 알고 그것을 참회하여야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품은 원한이 풀리는 것이다.¹⁶⁵⁾ 대순사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다. 즉 포덕(布德)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 사상을 스스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도저히 척을 풀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척을 푸는 방법으로서 증산은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반성하라고 가르쳤다.

증산의 다음 말을 보자.

162)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27

163) 같은 책, “공사: 3-4.”, p. 130

164) 같은 책, “공사: 3-29” p. 144

165)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楊茂木, “통일기반 사상으로서의 解冤相生,” 「大巡思想論叢」-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pp. 114~115 참조

“김형렬이 출타하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교 신자 김중구가 술이 만취되어 김형렬을 붙들고 혹독하게 능욕하는지라. 형렬이 심한 곤욕을 겪고 돌아와서 상제께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청수를 떠 놓고 네 허물을 살펴 뉘우치라.」 형렬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였도다. 그후 김중구는 한때 병으로 인해서 사경에 해매었다고 하느니라. 이 소식을 형렬로부터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에게 충고하시기를 「금후에 그런 일이 있거든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오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독기가 본처로 돌아가리라」 하셨도다.” 166)

위의 말 역시 척을 푸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김형렬을 꾸짖는 증산의 “너를 꾸짖는 것은 네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쳐 내려하는 것이니 과히 불만을 사지 말라” 167)고 한 말이나, 「대순지침」에서의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진리이니, 화합·단결·상부상조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토록 교화하라¹⁶⁸⁾고 한 말 등은 바로 이를 말한다 하겠다.

증산의 다음 말을 보자.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 169)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장점만 취하고 혹 단점이 보일지라도 잘 용서하여 미워하지 말라.” 170)

“남을 비방하는데 대해서 사람마다 제 노릇 제가 하는 것인데 제 몸을 생각지 못하고 어찌 남의 시비를 말하리오.” 171)

166)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법: 2-28.”, 앞의 책, pp. 238~239

167) 같은 책, “행록: 4-47.”, p. 76

168) 같은 책, p. 27

169) 같은 책, “교법: 3-15.”, p. 249

170) 같은 책, “예시: 46.”, p. 325

171) 같은 책, “교법: 1-20.”, p. 225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구설을 사서 분개하는 사람을 가리켜 바람도 불다가 그치나니 남의 시비를 잘 이기라. 동정(動靜)에 때가 있나니 견힐 때에는 흔적도 없이 걷히나니라.” 172)

“트집을 잡고 싸우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누그리고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니라. 분에 이기지 못하여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 사람이니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 어찌 잘 되기를 바라리오.” 173)

위의 말들은 하나같이 척을 푸는 마음의 자세, 즉 수도를 통해 마음을 넓히고 참고 인내하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임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람은 대순사상을 믿고 오직 한 마음(一心)으로 성·경·신을 다해 수도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척을 짓지 않을 것이며, 설사 척을 지었다 하더라도 쉽게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음양합덕을 실천하고, 신인조화를 실천하고, 해원상생을 실천하고, 도통진경을 실천해야만 올바른 수도가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건 「대순지침」에도 도통진경 실천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수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의 토대인 사강령(四綱領: 안심 안신 경천 수도)과 삼요체(三要諦: 誠 敬 信)를 이해하고 이의 실천이 수도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건 도인이 수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내적 수도와 외적 수도, 그리고 단체 수도 등이 그것이다. 또 수도 목적을 달성키 위한 준비 단계로서 여러 종류의 공부(工夫)가 있다. 예를 들면 수련공부(修鍊工夫), 시학공부(侍學工夫), 시법공부(侍法工夫)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은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72) 같은 책, “교법: 1-28.”, p. 226

173) 같은 책, “교법: 1-55.”, p. 231

VI. 결 론

지금까지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4대 종지가 대순사상의 궁극적 목표인 도통진경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이의 실천을 위한 수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4대 종지를 바탕으로 한 수도의 과정은 논리적인 전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해 가능해진다.

한편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도의 개념과 수행의 과정, 그리고 서양 사상을 포함한 각 종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완성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이것들이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수도의 개념을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계율과 돈오돈수가 강조되고, 기독교에서는 십계명 등의 실천이 강조되는 것도 결국은 수행의 완성을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수도의 목표인 도의 완성을 위한 도의 본질은 각기 상이한 듯하면서도 사실은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공자와 노자, 그리고 장자가 말한 동양의 도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동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와 함께 도에 대한 일정한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시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개인의 완성과 사회의 개혁을 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순진리에서는 이 같은 도의 수행과 완성이 궁극적으로 후천세계의 인류 구원사상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구원의 진리라는 점을 병기하고 싶다.

대순진리에서 말하는 실천과 수행의 원리가 좀더 포괄적인 것은 천지공사로서 천지인 삼계에 가득찬 원을 풀고 후천이라는 새로운 상생적 우주 질서를 완성한다는 사상적인 논리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순진리의 전체적 이상인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 도통진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천과 함께 해원상생 법리의 현실적 수행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무질서하고 혼란한 현실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한편 현실에 굴하지 않는 실천적 신념을 간직해야 한다. 현실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이 주는 시련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미래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편으로 자

연에 순응하면서 무위 속에서 실천을 이루는 전래의 동양 사상과 일치하는 바가 크다.

세상의 일에는 언제나 장애가 따르기 마련이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완성을 이루고 장래의 영화와 복록을 누리게 된다. 이때 극복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실천적 수행의 자세이며, 이는 신명이 드나드는 통로인 마음을 바르게 갖고 덕을 닦음으로써 가능해진다.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마음을 바로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어 헛된 기운을 없애면 신명은 절로 동화하여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또한 바른 마음으로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으므로 언제 어느 때나 바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행동과 처신이 예절과 법도에 맞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과 처신이 법도에 맞으면 세상에 시비와 오해가 생길 이유가 없다. 증산이 바른 마음으로 척을 짓지 말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미 지은 척이 있다면 풀어야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다른 척을 낳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미움과 오해를 낳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남이 잘 되기를 빌고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실천적인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척을 낳지 않을 정도로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행동을 하면 서로간에 마음이 화합하여 절로 해원상생의 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노자와 장자 등이 말한 무위자연과 불교의 대승·소승 불교를 아우르는 한편 서양의 기독교 사상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사회 개변 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실천 덕목이 수도이다. 수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양사상 속에 깊숙이 내재돼 있는 도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예를 중시했던 공자의 도 사상은 인, 의와 함께 정치적, 윤리적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국가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무위자연을 말한 노자는 만물을 있게 한 근원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상주불변(常住不變)의 존재인 도를 만물의 근본이며, 우주적 실재로 보았다. 도는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하며, 만물은 모두 다 도에서 나와 도로 복귀한다고 보았다. 무위(無爲)의 도는 세상에 아무런 혼란도 주지 않으며 개인이나 사회가 혼란과 역경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도덕으로서 기능한다. 도로써 몸을 수양하면 그의 덕이 참된 것이 된다.

장자 역시 우주의 본체를 도로 보고, 무시(無始)가 곧 도이며 유상(有象)은 무상(無象)에서 근거한 것으로, 무상이 곧 도라고 하였다. 장자는 도를 근본의 뿌리로 본다. 없는 곳이 없어 심지어 기왓장이나 벽돌, 뽕이나 오줌 속에도 있다고 했다. 장자의 도는 이와 같이 천지 자연 질서의 근본인 것이다. 또한 도는 진인(真人)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도를 통한 자유의 경지를 얘기했다.

불교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그의 주인이다. 그러나 인생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잘못된 집착에 있다. 인간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欲愛), 존재와 그 형성에 대한 갈망(有愛),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無有愛)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탐욕을 없애야 한다. 불교는 무지가 극복되고 지혜와 깨달음을 이루면 그것을 인으로 하여 고통이 소멸된다고 본다. 한편 기독교는 영생, 천국, 구원 등의 용어를 통해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헬라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강조하였다.

구원의 방법을 행동으로써 실행하는 것이 종교이며,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뒷받침하는 행동 양식이 바로 「수도」(修道)이다. 노자는 이를 위해 항상 자신을 갈고 닦는 수양을 계속해야만 자연히 무위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다. 불교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도에 전념하되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불타의 가르침을 따르고 타인에 대한 사랑·연민·봉사를 실천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대순진리 역시 수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건과 사물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마음을 속이지 말며 천성인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보다 남을 잘 되게 하며 척을 짓지 말라는 대순진리의 해원상생 사상이야말로 도덕이 무너지고 부정이 만연하는 현대 생활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이다. 이 같은 삶의 자세를 지니되 한마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인간 본래의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

순사상에서는 역사를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나누고, 천존시대와 지존시대를 선천시대라 하고 인존시대를 후천시대라 한다. 그런데 선천시대는 상극 원리에 의해 투쟁과 모순이 만연되어 있다. 해원상생의 진리를 바탕으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은 다가올 후천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천지공사를 통해서 우주를 새로운 질서로 조화하고자 한다. 증산은 신을 음, 인간을 양이라 하고, 이 음인 신과 양인 인간이 조화와 합덕을 갖지 못하면 인간계는 물론 신명계도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하늘, 땅, 사람의 삼계에서 신명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에 상극이 벌어져 진멸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천지공사를 통해 삼계의 진멸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선경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대순사상의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에서 말하는 수도란 개인의 성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산이 말한 우주의 완성과 인간 완성의 도수에 따라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후천선경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의 해원을 바탕으로 우주 전체의 조화와 상생을 이루고 이것이 신명과 땅과 하늘에 영향을 미쳐 전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수도는 오직 자신이 하는 것일 뿐 타인에게 미룰 수는 없다. 현재의 실천 수행과 노력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만큼 하루하루가 천지인의 조화 속에서 성과 경과 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도(道)를 깨닫고 도에 통하면 참다운 경지인 선경(仙境)에 이르게 되며 이같은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 속에서 상대방도 살고 자신도 사는 상생(相生)의 진리를 이룰 때 마침내 신인조화를 이루고 후천의 선경을 세울 수 있다.

【참고문헌】

1. 저 서

가. 한 국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대순진리회(편), 포덕교화기본원리(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75)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1집~제7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1999)
대순회보(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서울: 시공사, 1997)
권달천 역, 영적 훈련과 성장(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림영창·배용덕, 甑山神學概論(서울: 태광문화사, 1984)
목창균, 종말론 논쟁(서울: 두란노, 1998)
박태섭 옮김/루네 E. A. 요한슨, 불교 심리학(서울: 시공사, 1996)
박형수 편, 알기 쉬운 불교(서울: 불교방송 출판부, 1992)
심상태, 인간-산학적 인간학 입문(서울: 서광사, 1989)
심상태 역/G. 그레사케, 종말신앙: 죽음보다 강한 희망(서울: 성바오로출판
사, 1980)
李載昌·떡정·월포라 라후라 외,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鄭仁在 譯/勞思光, 中國哲學史(古代篇)(서울: 탐구당, 1995)
종교문화연구원 편,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창, 1993)
최준식 옮김/구보 노리따다, 도교사(서울: 분도출판사, 1990)
下中邦彦, 心理學事典(東京: 平凡社, 1962)

『莊子』 『周易』 『論語』 『孟子』
『孔子』 『老子』 『道德經』 『史記』

『周易傳義大全』 『明心寶鑑』

나. 서 양

Richard J.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San Francisco: Harper & Row, 1986)

Walpola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New York: Grove Press, 1962)

W. R. Inge, *Christian Mysticism*(New York: Scribner, 1899)

2. 논 문

楊茂木, “救援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제2집 (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楊茂木, “救援思想으로서의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楊茂木, “통일기반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대순사상논총』-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楊茂木, “宗教와 文學을 통한 道通眞境 思想의 考察,” 『대순사상논총』-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楊茂木, “大巡思想에서의 安心과 政治文化의 相關性 考察,” 『대순사상논총』-제7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9)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Augustine, *Christian Doctrine*, chap. 21.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First Series, vol. 11(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